

2008. 12
정책연구 2008-18(기본)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방안

2008. 12

이승우 · 홍장원 · 이윤정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이 승 우 : 제1장 1절~3절, 제2장 2절 2)의 (1), 제5장, 제6장

● 연구진

- 홍 장 원 : 제2장 1절, 2절 2)의 (3), 3절의 2), 제3장
- 이 윤 정 : 제1장 4절, 제2장 2절의 1), 2절 2)의 (2), 제3절의 1)과 3), 4장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이동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장우(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장)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 연구감리자

● 정봉민(해양국토연구부 연구심의역)

머 리 말

어촌은 국토의 공간으로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어촌이 접하고 있는 바다는 어촌주민의 주요한 생산공간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어메니티(amenity)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촌의 우수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과 생활환경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그리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청장년층의 비중도 도시보다 낮은바, 어촌의 노령화는 어촌의 생산성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산자원의 감소와 수산물 수입(輸入)의 증가에 따라 어촌의 주요한 소득원인 어업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어촌의 활력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어촌의 활력 저하는 국토의 한 부분으로서 어촌지역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어촌은 도시가 가지지 못한 다양한 자원과 환경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원과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촌의 다양한 자원 중에서 수산자원 중심의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즉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시스템의 개선, 기르는 어업의 육성, 수산생산 기반시설의 조성 등 수산물 생산 중심의 수산정책을 수립·집행하여 왔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어촌의 다양한 자원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업 외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어촌관광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관광욕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관광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즉 경유형 대중관광 수요가 감소하고 체류형 연성관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체류형 연성관광 중에서도 어촌관광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관광을 포함한 수산정책의 변화는 시의적절한 정책의 변화임에 틀림없다.

어촌관광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 투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어촌관광사업 중에서 어촌의 변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인 어촌의 배타성, 단편적인 어촌과 바다 자원의 활용, 어촌의 노령화, 어촌 주민의 부족한 시장경제 마인드 등을 개선하는데 어촌관광이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촌체험관광은 어촌의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촌주민과 도시주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촌과 도시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어촌체험관광은 어촌의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어촌주민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촌과 바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소비자인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지향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어촌관광은 어촌주민에 대하여 수동적 생산자 중심의 사고로부터 능동적 소비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시켜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촌관광이 어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분석하고, 어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어촌관광을 통하여 어촌의 개방, 인적자원의 개발, 다양한 자원의 활용, 소비자 지향적 생산, 그리고 지역 브랜드 창출 등을 도모함으로써 어촌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해양국토연구부 이승우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홍장원 책임연구원, 이윤정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조사·연구한 결과로서 어촌활성화를 위한 어촌관광의 활용방안을 제시한 정책보고서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선임연구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서장우 과장 등이 바쁘신 가운데도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토론과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주셨다. 그리고 현대인력개발원과 지역재단이 실시한 어촌지역 리

더교육과정에 참석한 피교육생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덕분에 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향후 각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어촌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8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강 종 희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연구의 방법
-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어촌 활성화와 어촌관광

1. 어촌의 경제·사회적 위상
- 1) 경제적 측면
- 2) 인문·사회적 측면
2. 어촌 활성화의 여건
- 1) 어촌 활성화 관련 법·제도 검토
- 2) 어촌 활성화의 도전과 기회
3. 어촌관광 현황 분석
- 1) 어촌관광의 특성 및 유형
- 2) 어촌관광개발사업의 현황
- 3) 어촌체험마을사업의 운영 실태

제3장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국내·외 사례

1. 국내 어촌활성화 사례분석

- 1) 전라북도 고창군 하전 어촌체험마을의 갯벌체험상품
- 2) 경기도 안산시 선감 어촌체험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 3) 경기도 이천시 부래미마을
2. 일본의 어촌지역 활성화 사례분석
- 1) 일본의 어촌지역 관광활성화 지원정책
- 2) 일본의 어촌지역 관광활성화 사례
- 3) 일본 어촌지역 지원사업의 시사점
3.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4장 어촌관광과 어촌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

1. 일반적 특성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2) 어촌 및 어촌관광에 대한 일반사항
2. 어촌활성화 기여도 분석
3. 종합검토

제5장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방안

1. 어촌관광의 역할
- 1) 어촌의 개방
- 2) 소비자 지향적 사고
- 3) 인적자원의 연계 및 육성
- 4) 생활환경 및 복지의 향상
2.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활성화
- 1) 어촌관광과 수산정책 변화
- 2)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방안

제6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부록 :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활성화에 관한 설문조사

표 목 차

표 2-1	어가소득 추이	7
표 2-2	어가소득과 농가/도시가계소득의 비교	
표 2-3	어가소득과 농가소득의 비교	
표 2-4	어가인구 추이 분석	
표 2-5	시·군별 의료기관 및 병상 수	
표 2-6	어가 상수도보급 현황	
표 2-7	어촌지역의 교육시설 현황	
표 2-8	우리나라 어촌개발정책의 변천 과정	
표 2-9	낙후지역개발 관련 정책 추진	
표 2-10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관련사업	
표 2-11	어촌관련 관광자원의 분류	
표 2-12	어촌지역 관광자원의 개황	
표 2-13	어촌지역의 유·무형 문화재 관광자원화 현황	
표 2-14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어촌관광의 정의	
표 2-15	어촌활성화 측면에서 바라 본 어촌관광의 정의	
표 2-16	어촌관광과 농촌관광의 공통점 및 차이점	
표 2-17	농촌관광과 어촌관광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	
표 2-18	어촌관광과 해양관광의 공통점 및 차이점	
표 2-19	기존연구에서 분류한 어촌관광 유형	
표 2-20	어촌관광 유형	
표 2-22	어촌관광 유형별 어촌활성화 가능성	
표 2-23	어촌지역 관광개발사업	
표 2-24	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현황	
표 2-25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투자비 내역	
표 2-26	어촌민속전시관사업 운영 현황	
표 2-25	어촌체험마을사업 추진 개요	

표 2-26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투자실적 및 계획
표 2-27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운영실적
표 2-28	어촌관광모델개발사업
표 2-29	모델 유형별 연차 투자계획
표 2-30	어촌징거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
표 2-31	어촌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어촌관광 개발 사업
표 2-33	2006년 현재 운영 중인 어촌체험마을 현황
표 2-36	어촌체험마을의 관광프로그램 유형
표 2-37	시도별 어촌체험마을의 관광프로그램 유형
표 2-38	어촌체험마을에서의 어촌관광 이외 관광프로그램
표 2-39	어촌관광 유형별 문제점
표 3-1	하전 어촌체험마을 체험시설
표 3-2	고창군 하전마을 어촌체험 프로그램
표 3-3	하전 어촌체험마을 운영성과
표 3-4	하전 어촌체험마을의 성공요인 평가
표 3-5	선감 어촌체험마을 체험시설
표 3-6	선감 어촌체험마을사업 운영성과
표 3-7	선감 어촌체험마을의 컨설팅 운영결과
표 3-8	선감마을의 어촌체험마을 홍보대회 참가실적
표 3-9	선감 어촌체험마을의 성공요인 평가
표 3-10	부래미마을의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표 3-11	농산어촌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 촉진법률
표 3-12	도시어촌교류촉진사업의 역할
표 3-13	니이가타현의 도시어촌교류사업
표 3-14	니이가타현 노마치정의 어촌체험프로그램
표 3-15	도야마현의 도시어촌교류사업
표 3-16	국내·외 사례 시사점 분석
표 4-1	설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표 4-2	마을 내 어업인구 비중
표 4-3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시간

표 4-4	어촌활성화를 위해 모색(혹은 추진)한 사업
표 4-5	신뢰도 분석
표 4-6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의 경제적 활성화 정도
표 4-7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의 사회적 활성화 정도
표 4-8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의 문화적 활성화 정도
표 4-9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의 교류 활성화 정도

그림 목차

그림 2-1	어가소득의 구조
그림 2-2	어가소득과 농가/도시가계소득의 증가추이
그림 2-3	어가인구의 연령별 구성변화 추이
그림 2-4	어촌과 전국의 인구노령화 추이
그림 2-5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의 추진방안 및 주요과제
그림 2-6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그림 3-1	고창군 하전 어촌체험마을 전경
그림 3-2	하전어촌체험관광마을 홈페이지
그림 3-3	선감 어촌체험마을 전경
그림 3-4	선감마을의 어촌체험시설 현황
그림 3-5	선감마을의 어촌체험프로그램
그림 3-6	선감 어촌체험마을의 체험마을 운영조직
그림 3-7	선감마을의 어촌체험 홍보책자
그림 3-8	부래미마을 전경
그림 3-9	부래미마을 도시민 유치실적
그림 3-10	등록 농림어업체험민박 수의 추이
그림 3-11	블루투어리즘의 파급효과
그림 3-12	도야마현의 도시어촌교류사업 현황 사진
그림 4-1	마을주민의 어촌관광 참여율
그림 4-2	어촌관광 실시기간
그림 4-3	어촌관광의 유형
그림 4-4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건
그림 4-5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활성화 정도
그림 4-6	어촌관광 유형별 어촌활성화 정도
그림 4-7	어촌활성화를 위한 어촌관광의 개선점

그림 4-8	청장년층 유입을 위한 필요 요소
그림 4-9	어촌관광이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
그림 4-10	어촌관광이 어촌문화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
그림 4-11	도시·어촌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어촌관광 요구사항
그림 5-1	어촌개방과 어촌관광의 관계
그림 5-2	인적자원 계발과 어촌관광의 관계
그림 5-3	어촌관광과 어촌활성화의 관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어촌의 주요한 소득원은 1차 산업인 어업이다. 어업은 노동의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산출량이 수산자원의 부존량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촌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어업의 어촌 소득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 결과 어촌소득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어업인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젊은이의 어촌에 대한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계발을 곤란하게 하는 악순환(vicious circle)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어촌과 바다의 자원을 포기할 수 없다.

어촌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21세기 문명창조를 지향함에 있어 새로운 개척지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어촌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토의 중요한 공간이다.

수산물의 생산, 유통과 소비의 연계기능이 어촌 고유의 기능이지만,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회복하는 기능과 새로운 문화와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기능의 어촌 지역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즉 어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원적 어촌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어촌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자본, 노동 및 토지의 3요소 중에서 어촌은 투자자본과 우수한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촌, 어장, 어항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생산 및 정주

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에 대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축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이 낮은 노령 구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른 국토공간과 차별화된 고유한 자원의 보전, 발굴 및 활용을 위한 투자와 인적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21세기의 주요한 트렌드인 건강, 문화 및 환경은 국가 정책의 근간이자 기업의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삶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즉 이들은 국민 혹은 소비자의 웰빙(well-being) 욕구의 충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어촌과 바다는 국민의 건강, 문화 및 환경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어촌은 국토의 잠재적 부가가치를 실현시키는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어촌관광은 다양한 어촌자원의 활용과 자원간의 연계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어촌의 정주기능, 생산기능 및 환경보전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어촌관광을 어촌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어촌의 어업외소득 창출을 위하여 2001년부터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어촌관광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촌주민 등은 3차산업인 어촌관광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이다. 더욱이 어촌관광의 상품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은 어촌주민이 소수일 뿐만 아니라 교육기간이 짧아 어촌관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어촌관광이 어촌 활성화 수단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촌지역을 1차 산업인 어업공간뿐만 아니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복합공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어촌관광은 어촌지역의 복합산업공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어촌관광 수입의 대부분은 어업체험상품의 입장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촌관광의 혜택이 일반 어업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어촌관광이 어촌 활성화 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업체험 상품은 대상 어업자원의 지속적 관리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수산자원의 생산이 적정 생산수준을 초과하면 자원의 감소를 초래하여 어촌관광은 물론이고 수산물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촌관광이 어촌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촌관광의 직접 효과뿐 아니라 간접 효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어촌관광의 직접적·계량적 편익은 물론이고 간접적·비계량적 편익을 높일 때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의 촉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어촌관광이 어촌의 어업외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한정하지 않고 어촌의 어업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소득원을 증가시키는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어촌관광의 직·간접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어촌관광이 어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어촌관광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정부의 수산물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수산물 생산과 관련한 투자를, 그리고 생산기반시설 중 중요한 시설인 어항과 어촌주민의 생활기반인 어촌과 관련한 부서는 어촌과 어항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어촌관광관련 사업의 투자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관광객을 고려한 투자는 아주 드물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어촌의 고유기능인 정주기능과 생산기능에 관광기능이 추가되었다. 어촌의 기능에 관광기능을 추가함에 있어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논란의 핵심은 어촌의 주요한 기능인 생산기능을 관광기능이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어촌의 고유기능인 생산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어업인이 관광사업에 참여하기보다 외부자본의 주체가 어촌관광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어촌의 생산주체인 어업인의 생산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촌에 대한 관광기능 도입은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의 발굴과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관광은 어촌주민의 이해 부족 및 바다와 어촌에 대한 정책 통합의 미흡으로 기대만큼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촌관광이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 주도로 투자되고 있는 어촌관광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어촌관광 담당자들이 정부의 투자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바, 이들의 어촌관광의 효과와 역할에 대하여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어촌관광의 투자실태와 운영에 대한 조사와 함께 어촌관광 투자사업의 집행자인 담당공무원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하여 어촌관광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어촌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국내와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어촌주민의 어촌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어촌관광을 어촌의 어업외소득 증대의 수단으로 초점을 맞추는 관점의 변화를 이끄는 것도 본 연구 목적 중의 하나이다. 즉 어촌관광의 직접 소득인 어장체험 입장료만으로 어촌관광의 효과를 한정하지 않고, 어촌관광의 다양한 직접 소득의 창출은 물론이고 간접 소득의 창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어촌주민이 어업생산과 관광에 자긍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어촌 활성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어촌에서 단순한 관광활동이 아닌 어촌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촉매제로서 어촌관광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어촌 활성화와 어촌관광의 관계를 살펴본다. 즉 지역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로서 어촌 활성화의 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촌·바다 자원의 활용 가능성, 관련 법·제도 및 어촌관광 개발사업의 어촌 활성화의 연계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어촌 활성화를 위한 어촌관광의 역할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그리고 국내·외의 관광을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어촌관광이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도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한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촌 개방, 어촌 자원의 활용, 인적자원 개발, 주민의 참여, 지역 브랜드 창출 등에 있어서 어촌관광을 활용함으로써 어촌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어촌 및 어촌관광과 관련된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어촌분야 정책담당자와의 협의 및 자문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각종 통계지표와 정책 자료를 분석하여 어촌의 경제·사회적 구조와 특성, 어촌지역 개발관련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례조사에서는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사업과 관련된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고 어촌관광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밖에 관련 정책 담당자와의 협의,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하여 어촌관광사업의 추진현황,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3) 어촌관광관련 선행연구 검토

어촌관광은 어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어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적 요구와 주5일근무제 실시와 국민소득의 증대로 발생한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에 대한 수요 증가가 결합되어 생겨난 관광형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촌관광은 1990년 대 이후 정부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그 효시는 1990년에 수산청에서 행정계획사업으로 실시한 어촌관광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어촌관광사업이 현재와 같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실시된 것은 1994년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며, 어촌관광에 대한 연구 역시 이 시기부터 본격화되었다.

어촌관광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어장·어항·어촌을 통합한 어촌종합개발 모형수립에 관한 연구”(박성쾌 외 8인, 1995)에서 어촌개발은 생활공간인 어촌, 생산공간인 어장, 그리고 두 공간의 결절지(結節地)인 어항을 연계하여야 실시하여야 함을 지적했다. 즉 어촌개발 사업은 어장, 어항, 어촌의 개발에 필요한 고유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어장과 어항이 연계되는 부분과 어항과 어촌이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까지 추진

하여야 하는데, 각 고유 영역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어촌관광사업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어촌관광은 유어장에서의 바다낚시활동과 같이 단일 영역에서만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낚시활동 이후 어촌 혹은 어장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상함으로써 각 영역을 연계할 수 있다.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농림부, 1996)에서는 현장조사 및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를 통하여 전국 어촌의 관광자원을 파악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어촌관광 참여 실태 및 관광수요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어촌 관광지 유형을 어항 중심의 어촌관광지, 해수욕장 중심의 어촌 관광지, 낚시터 중심의 어촌관광지, 종교·문화자원 중심의 어촌관광지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유형별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유형별 어촌관광 개발방향 제시가 심도 깊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최초로 전국 어촌의 부존자원을 조사하여 가능한 관광활동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어촌지역 자원에 대한 연구로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승우·홍장원·한광석, 2004)가 있다. 동 연구에서는 수산시설 중 인공어초, 수산종묘생산시설, 방파제, 해사가두리 시설을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황기형·이승우, 2000)에서는 문헌조사와 통계조사를 통해 어촌관광개발사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어촌관광개발은 어촌 지역사회에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어촌은 어업공동체가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 혹은 공간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¹⁾ 어촌에서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공동재산의 사용과

1) 어촌은 개별 어가를 단위로 형성된 어업 생산공동체로서, 그 공동체적 성격으로 인하여 어촌관광이 이루어지는 어장, 어항, 어민회관, 방풍림 등은 어촌의 공동재산적 성격을 갖는다.

관련한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이러한 상충문제 그리고 외지자본이나 공공부문에 의한 자원소유권의 사유화는 어촌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기 때문에 어촌관광개발에서 주민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어촌관광의 성격을 소규모 어업인 중심의 관광으로 보았다.

해양수산부의 “어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에서는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어촌관광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그리고 관광적 측면에서 어촌관광의 효과를 언급하였다. 동 연구에서 어촌관광이 우리나라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으며 어촌이라는 특정 공간에 집중하지는 않았다.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방안 연구”(김성귀·홍장원·박상우, 2001)에서는 어촌관광의 유형을 어촌자원, 체류기간, 공간(도시 근접정도), 지형형상(모래해변, 갯벌 등 해안 형상),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관광을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한 7가지 유형을 활용하여 어촌관광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연구에서는 어촌·어항·어장을 연결하여 개발해야 함을 지적하고, 어업과 연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어촌관광 유형 및 관광자원화 가능한 유희어업자원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촌관광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촌관광을 어촌의 경제적 활성화, 사회적 활성화, 문화적 활성화, 교류의 활성화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 어촌 활성화와 어촌관광

1. 어촌의 경제·사회적 위상

1) 경제적 측면

우리나라의 어촌은 어업자원의 고갈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의 축소, 시장개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어가소득의 변화추이를 통하여 어촌의 경제적 여건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표 2-1>과 같다. 과거 10년간 어가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전체 어가소득은 1,679만 4천원에서 2007년 3,066만 8천원으로 나타나 연평균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2-1 | 어가소득 추이

(단위 : 천원)

구분	어가소득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수입
1998년	16,794	9,254	5,201	2,339
1999년	18,428	10,323	4,883	3,222
2000년	18,875	10,078	5,313	3,484
2001년	21,463	8,556	8,425	4,482
2002년	21,590	9,060	7,944	4,586
2003년	23,916	10,741	8,619	4,556
2004년	26,159	11,959	9,168	5,032
2005년	28,028	11,950	9,399	6,679
2006년	30,006	11,603	10,361	8,043
2007년	30,668	11,975	10,981	7,712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2007.

한편, 어가소득의 변화추이와 관련하여 어가소득을 어업소득과 어업외소득, 이전수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8년의 경우 전체 어가소득 중

어업소득 55%, 어업외소득 31%, 이전수입 14%에서 2007년의 경우 어업소득 39%, 어업외소득 36%, 이전수입 25%로 변화되었다. 즉 지난 10년간 어업을 통한 소득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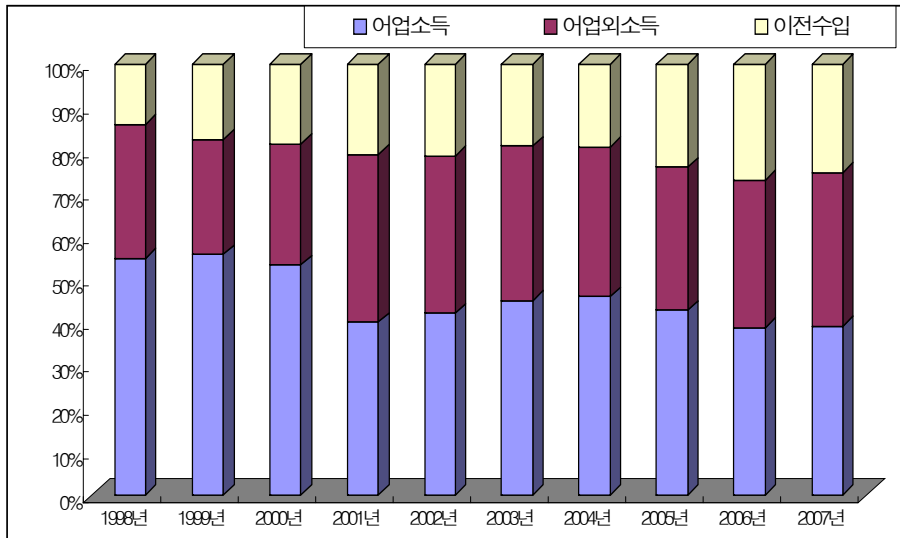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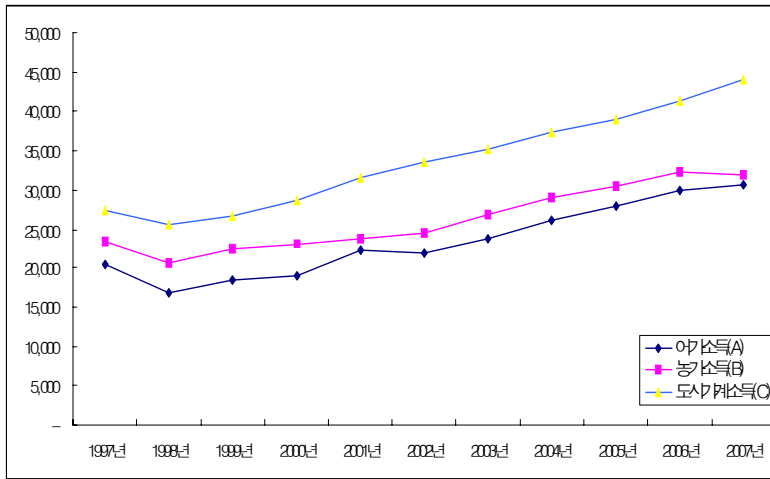


그림 2-1 어가소득의 구조

어가소득의 변화를 농가소득 및 도시가계소득과 서로 비교해보면 <그림 2-2>와 같다. 어가소득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과거 10년간 연평균 6.9%가 성장한데 비하여 농가소득은 연평균 5.1%, 도시가계소득은 6.2%가 성장하여 성장률에 있어서는 어가소득의 성장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가소득이 농가소득이나 도시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아직 일정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2-2] 어가소득과 농가/도시가계소득의 증가추이

어가소득을 농가소득이나 도시가계소득과 비교해 볼 때 1998년의 경우, 어가소득은 농가소득의 81.9%, 도시가계소득의 65.6%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2007년에는 농가소득의 95.9%를 차지하여 농가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도시가계소득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표 2-2] 어가소득과 농가/도시가계소득의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어가소득(A)	농가소득(B)	도시가계소득(C)	A/B	A/C
1998년	16,794	20,494	25,601	81.95%	65.60%
1999년	18,428	22,323	26,707	82.55%	69.00%
2000년	18,875	23,072	28,642	81.81%	65.90%
2001년	22,252	23,907	31,518	93.08%	70.60%
2002년	21,816	24,475	33,512	89.14%	65.10%
2003년	23,916	26,878	35,274	88.98%	67.80%
2004년	26,159	29,001	37,370	90.20%	70.00%
2005년	28,028	30,503	39,036	91.89%	71.80%
2006년	30,006	32,303	41,331	92.89%	72.60%
2007년	30,668	31,967	44,127	95.94%	69.50%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2007.

즉, 어촌의 소득여건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고는 있지만 도시가계 소득과 비교하여 볼 때,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편이다. 한편, 어가소득 여건이 과거에 비하여 다소 개선된 것은 어선감척 사업 등의 어업구조조정과 더불어 양식어업의 생산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어촌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입으로 어가소득이 다양화 된 것도 어가소득의 증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어가소득 중 어업의존도(어업소득률)를 농가소득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어업소득률은 45.1%인데 반하여 농업소득률은 39.9%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분석결과, 어업소득률은 과거에 비하여 다소 개선되었지만 농가소득률과 비교해 볼 때 어업소득률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어촌의 소득구조는 어업외소득 분야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소 높은 편이다.

| 표 2-3 | 어가소득과 농가소득의 비교

(단위 : 천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감(07/06)	
						금 액	증감률
어 업 소 득	10,741	11,959	11,950	11,603	11,975	372	3.2
어업총수입	23,114	25,144	26,576	25,910	26,535	625	2.4
어업경영비	12,373	13,185	14,626	14,307	14,560	253	1.8
어업소득률	46.5	47.6	45.0	44.8	45.1	-	-
농 업 소 득	10,572	12,050	11,815	12,092	10,406	-1,686	-13.9
농업총수입	23,611	26,623	26,496	27,322	26,102	-1,220	-4.5
농업경영비	13,039	14,572	14,681	15,231	15,696	465	3.1
농업소득률	44.8	45.3	44.6	44.3	39.9	-	-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2007.

2) 인문·사회적 측면

우리나라 어촌사회의 인구·사회적 특징과 관련하여 어가인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어가인구는 1998년 32만 2천명에서 2007년 20만 2천명으로 10년의 동안 연평균 -5.0%의 감소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7년 기준 어가인구는 농가인구대비 6.2%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2-4> 참조). 어가인구의 증감추이를 농가인구와 비교해보면 동기 간동안 농가인구는 -3.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어가인구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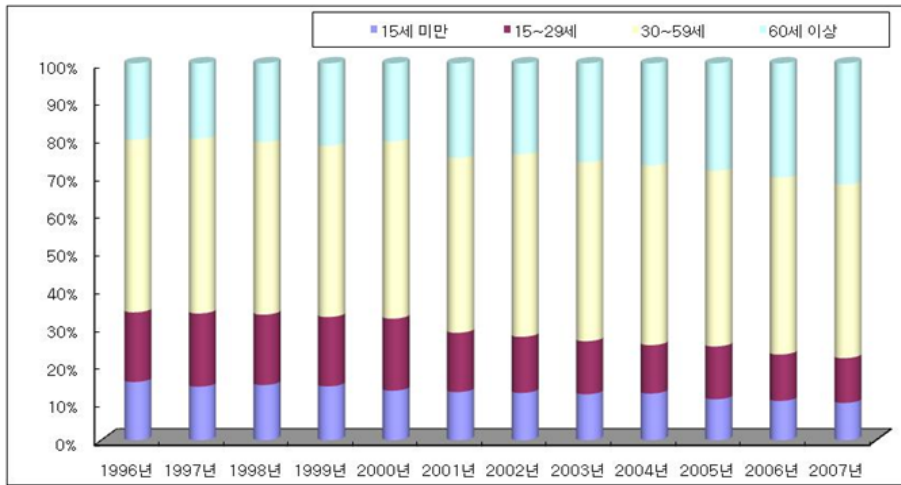
| 표 2-4 | 어가인구 추이 분석

(단위 : 천명, %)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률
어가인구	322	315	251	234	215	212	210	221	211	202	-5.0
농가인구	4,400	4,210	4,031	3,933	3,591	3,530	3,415	3,434	3,304	3,274	-3.2
총인구	46,287	46,617	47,008	47,357	47,622	47,859	48,039	48,138	48,297	48,456	0.5
농가인구 대비	7.3	7.5	6.2	6	6	6	6.2	6.4	6.4	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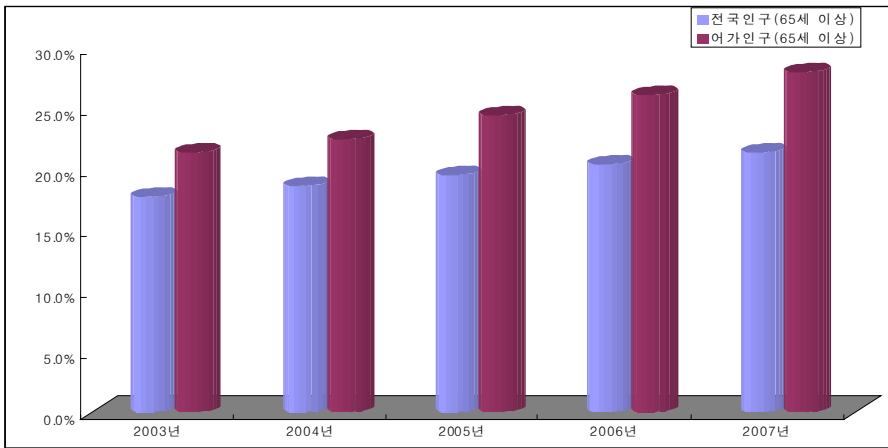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2007.

어가인구의 변화추이를 연령별 구성변화를 통하여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으며, 60대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3년의 경우 전체 어가인구 중 60대 이상의 인구가 20.3%인데 반하여 2007년의 경우에는 32.2%로 조사되어 노년층 인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향후 어촌사회의 노동력 부족 및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그림 2-3] 어가인구의 연령별 구성변화 추이

한편, 어촌사회의 노령화와 관련하여 어촌과 도시의 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을 상호 비교해 보면 <그림 2-4>와 같다. 우선 2003년의 경우 어가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21.4%이며 우리나라 전체인 17.8%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리고 2007년의 경우 어가 노령인구의 비중은 28.0%로 높아졌다. 즉 우리나라 어촌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림 2-4] 어촌과 전국의 인구노령화 추이

어촌사회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노령화 현상의 가속화는 어촌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적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촌사회의 정주기반을 개선하고 소득여건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어촌사회의 열악한 정주환경은 어촌사회의 발전을 더욱 제약시키고 있다. 어촌사회의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도시와 어촌의 의료여건을 상호 비교해보면 <표 2-5>와 같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대부분의 병·의원이 도시로 분류되는 시부에 모여 있고, 어가의 주된 거주지인 군부에는 전체 의원의 13.2%, 병원의 17.9%, 종합병원의 5.2%만이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농어촌지역 거주민의 의료시설 접근성은 도시에 비하여 크게 떨어진다.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기관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농산어촌의 경우 평균 29.9분이 걸리는데 비해 도시는 17.5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표 2-5 | 시·군별 의료기관 및 병상 수

구 분		기관 수			병상 수		
		군부	시부	합계	군부	시부	합계
총합계		6,156	43,171	49,327	53,447	326,274	379,751
일반 병의원	의 원	3,354	22,058	25,412	14,832	79,140	93,972
	병 원	142	652	794	19,835	70,632	90,467
	종합병원	15	275	290	3,324	117,404	120,728
	소 계	3,511	22,985	26,496	37,991	267,176	305,167
한방 병의원	한방병원	10	136	146	405	8,133	8,538
	한의원	1,255	8,510	9,765	178	494	672
	소 계	1,265	8,646	9,911	583	8,627	9,210
치과 병의원	치과병원	1	122	123	-	225	225
	치과의원	1,282	11,238	12,520	-	2	22
	소 계	1,283	11,360	12,643	-	247	247
요양 병원	노인전문병원	14	22	36	1,184	3,796	4,980
	요양병원	32	135	167	3,869	15,159	19,028
	치매병원	2	8	10	142	1,351	1,493
	소 계	48	165	213	5,195	20,306	25,501
특수 병원	결핵병원	-	3	3	-	1,373	1,373
	정신병원	23	79	102	8,545	27,707	36,252
	한센병원	1		1	1,000	-	1,000
	소 계	24	82	106	9,545	29,080	38,625
부속병의원		20	167	187	161	687	848
조산원		5	41	46	2	151	153

자료 : 보건복지부(2005)

그리고 어가의 상수도 보급여건 또한 도시지역에 비하여 크게 열악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상수도 공급율(89.3%)에 못 미치는 51.3%로 나타나고 있어 기초적 정주여건에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 표 2-6 | 어가 상수도보급 현황

구분	전체 어가	상수도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자가(전용) 수도		없음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어가	79,942	40,975	51.3%	22,637	28.3%	2,112	2.6%	14,218	17.8%
동부	15,061	12,446	82.6%	1,578	10.5%	357	2.4%	680	4.5%
읍부	15,749	10,676	67.8%	2,387	15.2%	521	3.3%	2,165	13.7%
면부	49,132	17,853	36.3%	18,672	38.0%	1,234	2.5%	11,373	23.1%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2005.

이와 더불어 자녀의 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또한 어촌은 도시에 비하여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표 2-7> 참조). 어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장년층 인구의 유입을 증대시켜야 하지만 이들 자녀의 교육여건과 더불어 기타 문화·복지 여건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촌사회의 활력증진과 성장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 표 2-7 | 어촌지역의 교육시설 현황

구분	학 교					학교당 학급 수
	전 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국	18,951	8,275	5,646	2,935	2,095	13.7
연안 군	1,797	727	597	300	174	6.5

자료 : 각 시도 교육통계연보(2005)

어촌사회의 소득여건과 더불어 인구추이, 노령화 여건, 정주환경 등에 대한 검토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어촌사회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여건이 우수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런데 도시와 어촌사회의 교류 증진을 위한 어촌관광사업은 어촌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어촌 활성화의 여건

1) 어촌 활성화 관련 법·제도 검토

우리나라의 어촌개발 정책은 1960년대까지 어업 생산량 증산 위주의 지도 사업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지역개발과 도농간 통합, 권역별 대단위 어촌사회의 조성이라는 종합적·통합적 어촌개발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해양수산부 2006). 그런데 1966년 수산청이 설립되면서 선진 수산기술 지도 및 새로운 생활양식의 보급을 중심으로 한 어촌개발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어촌개발사업은 1970년대에는 어촌새마을 운동으로, 1980년대에는 어촌지도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역시 어업 중심의 개발정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1994년 농어촌정비법 제정과 1996년 8월 해양수산부의 발족을 계기로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표 2-8 | 우리나라 어촌 개발정책의 변천 과정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어촌개발정책	없음	어촌새마을운동	어촌지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관광사업 ²⁾
세부방향 및 주요 내용	-	어촌기초환경 개선	수산기술 지도 생활양식 보급 ¹⁾	어촌종합개발 어업인력육성 어항시설확충 어로시설 현대화

주: 1) 어촌 청소년·부녀자 지도를 위한 조직 육성, 어촌지도자 육성 및 훈련,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 어촌부업 지도 등이 이에 해당함

2) 어촌관광사업으로는 어촌휴양단지, 어촌민박, 어촌체험마을사업, 다기능어항, 어촌관광단지, 어촌어항복합공간 등이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시책의 장기적 변화와 금후의 정책방향」, 2006. 10.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는 어촌연안시설, 수산물유통가공시설, 어촌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근린시설 개발과 복지사업 확대, 그리고 어촌관광 개발 등이 포함되어 이전 어촌개발사업에 비해 한층 진일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어촌 소득원의 확대를 위해 어촌휴양 단지, 어촌체험마을사업, 어촌관광모델사업 등 다양한 어촌관광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1980년대 이후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 지방소득세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대상지역은 도시 중심의 성장정책 과정에서 소외된 곳이며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내생적인 개발 역량이 소진되어 왔던 곳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정주여건 및 복지수준을 개선함과 동시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표 2-9> 참조).

| 표 2-9 | 낙후지역개발 관련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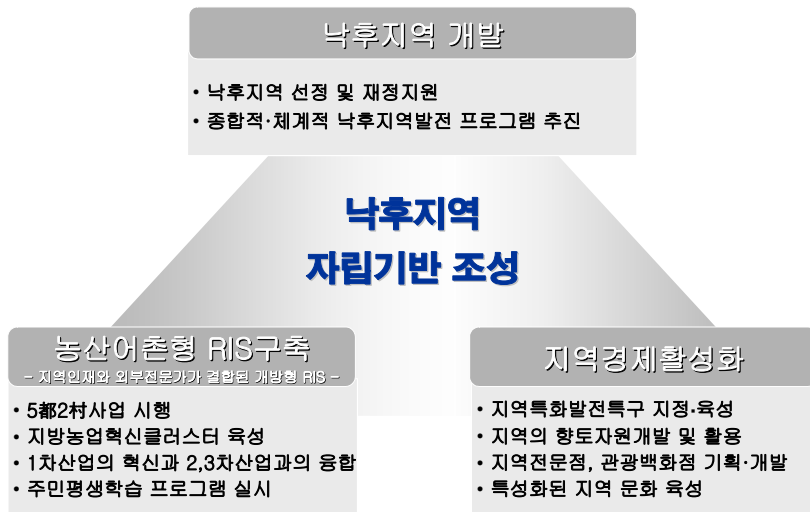
구분	도서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	지방소도읍개발사업
주관부처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근거법령	도서개발촉진법(1986)	오지개발촉진법(198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994)	접경지역지원법(2000)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2001)
사업목적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오지낙후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으로 지역 격차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도모	산업기반, 생활환경 및 편의·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 조성, 안정된 산업구조의 정착,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낙후지역의 생산기반 조성, 생활환경 개선, 지역기반시설 정비,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주민소득증대 및 자연환경 보전	접경지역의 종합적 이용과 주민복지의 증진,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및 통일기반 조성	지방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사업내용	생산기반·생활기반·문화복지·환경위생·생활안전시설, 배수개선, 전화(전기)사업, 식수원, 해상공원, 소각장, 연육교, 항만어항시설, 조립육림임도사업	산업기반생활기반문화복지, 주거환경개선, 국토보전시설, 환경위생시설, 생활안전시설, 일반경지정리, 농어촌전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농공단지등 소득원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정비 및 확충, 농어촌취락정비, 농어촌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지역 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기반시설사업	사회간접자본 확충, 산림환경보전, 산업기반관광개발, 정주생활환경개선, 남북 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 문화재발굴 및 문화유산 보존, 지역별 전략사업	지역산업진흥관련 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련 사업,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관련 사업, 문화 및 관광육성 관련 사업
사업성격	공공사업 정부재정	공공사업 정부재정	공공사업	공공사업 민자유치	공공사업 정부재정	공공사업 정부재정

자료 : 이동필 외3인,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평가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위의 사업들은 각기 다른 부처에서 소관 법령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거나 소규모 개발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어촌개발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수립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년)에서는 불균형 경제성장으로 발생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혁신체계(RIS : Regional Innovation System)²⁾에 기반을 둔 역동적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추진전략으로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중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전략에 기존의 어촌개발과 관련된 사업들, 즉 어촌종합개발사업, 낙후지역개발사업, 어촌관광관련 사업들이 포함되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2-5>는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과 주요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 : 산업자원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2004.

[그림 2-5]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의 추진방안 및 주요과제

2) 농산어촌형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는 ‘산업기반과 혁신역량이 영세한 농산어촌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내부인사, 출향인사, 인근대학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한 개방형 지역혁신체계’를 말한다.

국토균형발전계획에서 수립한 사업 중 어촌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살펴 보면 <표 2-10>과 같다. 여기에서 ‘낙후지역 개발’에는 기존의 어촌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이 해당되며,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어촌체험마을사업 등 관광사업이 있다. 어촌종합개발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역시 어촌관광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어서, 어촌개발 및 활성화에서 어촌관광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한편 ‘농산어촌형 RIS³⁾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어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없다. 그러나 어촌관광사업 등을 통해 어촌이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므로 RIS 혹은 지역전문가 육성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표 2-10】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관련사업

추진방안	추진전략	어촌개발 관련사업
낙후지역 개발	부처별로 사업을 분산적으로 추진하되,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 어촌지역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어촌생활환경정비(전원주거단지 조성) 등
농산어촌형 RIS 구축	지역의 자원, 특성, 어메티니 적극 활용 도농간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 1차산업을 2차산업 및 관광산업과 연계발전 농업을 생명공학과 연계하여 농업혁신클러스터로 육성 주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혁신역량을 제고	농산어촌형 RIS 구축, 5도2村사업 시행, 지역전문가 그룹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구사업 추진 및 관련 규제를 완화 향토자원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지원 강화, 소상공인에 필요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인력수급기관과의 연계강화, 지방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지역밀착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 어촌체험마을·아름다운 어촌 조성, 지역 특산어류전시관 등

주: 농산어촌형 RIS는 ‘산업기반과 혁신역량이 영세한 농산어촌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내부인사, 출향인사, 인근대학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한 개방형 지역혁신체제’임.

3)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란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 NIS)의 하위개념으로 지역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생산과 정 및 새로운 지식 창출·확산·활용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어촌 활성화의 도전과 기회

(1) 어촌 활성화의 저해요인

① 배타적인 어촌주민의 성향

국토의 연안에 위치하는 어촌에 거주하는 어촌주민의 대부분의 생활과 경제활동이 어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이 생산한 수산물은 대부분 어촌지역의 위판장 혹은 중개상에게 판매된다. 따라서 어촌주민은 도시주민과 교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수산업법 제8조의 면허어업, 제41조의 허가어업, 제46조의 신고어업 등 관련 규정에서는 수산물 생산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바다, 바닷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등에서 도시주민은 물론이고 허가·면허 받거나 신고를 한 어촌주민 이외의 자가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업면허는 어장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어업권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제한된다. 그리고 허가어업은 업종별 허가정수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촌주민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어촌계나 수산업어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하는 마을어업은 어촌계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⁴⁾ 그러나 어촌으로 J턴 혹은 I턴 하는 도시주민은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야 어촌계원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촌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어촌의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어업의 제도적 여건에 의하여 어촌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배타적 공간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배타적 특성을 갖는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은 외부 환경변화에 소극

4) 수산업법 제9조 제1항.

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즉 배타적인 어촌주민은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어촌의 위기를 자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응수단의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② 단편적인 어촌과 바다자원의 활용

대부분의 어촌주민은 ‘고기를 잡는 마을’이라는 어촌의 개념에 충실하다 할 정도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어촌주민의 수산자원의 집중적 이용은 수산물의 지속적 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수산물 생산의 감소와 해외 수산물 수입의 영향으로 어업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적어 수산물 생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어촌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등이 있다. 그러나 어촌주민은 수산자원이 아닌 다른 자원의 이용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이들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어촌주민은 수산자원과 다른 자원의 결합 및 이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거의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수산·어촌 정책 중 어촌의 수산물 생산 기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수산물 생산기능은 어촌의 중심적 기능이기 때문에 수산·어촌 정책 중 수산물 생산 관련 정책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산자원과 다른 자원의 연계를 통한 수산자원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수립 또한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촌과 바다자원을 활용한 유형 또는 무형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주민의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어촌의 노령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 및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노령사회로 진입하고 있

다. 특히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노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령사회는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동력의 의존도가 도시와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어촌의 노령화는 어촌의 발전은커녕 어촌의 유지조차 위협하고 있다.

어촌의 노령화는 수산물 생산활동의 참여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어촌의 인적 자질의 열위를 가속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어촌의 노인은 청년보다 교육수준이 낮아 단순한 육체노동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어촌의 부가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투자사업의 효과는 어촌의 인적자원의 수준과 매우 관계가 높은데, 어촌의 노령화로 인한 인적자원의 자질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 인적자원의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④ 부족한 시장경제 마인드

전자 상거래의 증가로 시장은 구체적 공간이 아닌 추상적 공간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시장이 구체적 공간이든지 추상적 공간이든지 관계없이 그 곳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난다. 공급자는 상품의 가치를 높여 시장에 내놓고, 수요자는 자신이 필요한 상품을 찾는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시장에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급자는 수요자가 어떤 상품을 찾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상품의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의 소비패턴은 상품의 수요와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는 성별, 연령, 직업, 소득, 거주지 등 소비자의 환경에 따라 여러 계층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상품의 생산자는 목표 소비자 계층을 정하고, 이들의 소비욕구에 적합한 상품을 생산할 때 상품

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촌주민은 소비자의 식탁에 올려지는 식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즉 그들은 시장의 주요한 주체라는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수산물의 생산담당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대응하는 수산물을 생산하여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어촌주민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어촌과 바다의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형상품과 무형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부족한 어촌주민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특히 그들이 어촌을 찾는 소비자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2)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활성화

한표환(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은 ‘지역활성화’를 해당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잠재자원’, 이를 활용한 ‘활동’, 그리고 자원을 활동에 연결 짓는 ‘계기’라는 3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란 어촌문화 및 생활양식, 어업활동, 연안환경 등의 부존자원을 소재로 한 관광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어촌의 발전을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어촌관광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해양수산부, 2001년)에 의하면 어촌관광은 어업외소득 증대, 어업의 고부가가치화, 어한기 어촌 노동력 등의 효율적 활용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주민의 협동심 제고, 애향심 고양, 생태 및 경관의 보전, 생활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 해양개발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재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의 사회·문화적 효과가 있다. 그리고 유승우·박정철(한국농촌연구원, 2004)은 농촌축제의 경제적 효과로

소득증대, 신산업 창출,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의 재구조화를, 사회적·문화적 효과로 지역사회 애착 향상, 문화활동의 기회 확대, 지역 환경 및 이미지 개선을 언급하였다. 즉 어촌관광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하여 어촌관광의 어촌활성화 효과를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교류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교류의 측면을 추가한 이유는 어촌관광의 태생적 목적이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활성화이기 때문이다.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활성화의 개념을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의 경제적 활성화란 직·간접적 관광소득 및 수산물 판매 소득 획득,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사업체 운영 등을 의미한다. 이때 관광소득은 관광객이 관광상품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참가비와 식사 및 숙박을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그리고 수산물 판매 소득은 지역에 방문한 어촌관광객에게 직접 수산물을 판매하여 부수적으로 얻는 어업소득이다. 한편 어촌관광은 어한기의 어업인력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어촌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리고 어업이외 숙박업, 음식점업, 소매업, 어촌관광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영위할 수 있어 어촌의 경제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다.

둘째,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의 사회적 활성화란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인구 유입, 청장년층 인구 증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의미한다. 어촌관광을 실시하기 위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시설, 전기 등의 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하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도 개선되며, 소공원이나 경관 정비사업 등 관광기반시설(사업)은 어촌 거주민의 정주 만족도 및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또한 어촌관광은 어업이외 식당업, 숙박업, 매점업, 관광프로그램 운영업 등을 파생시켜 어업권이 없는 외지인들도 어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므로, 외지인이 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어업여건이 나쁘더라도 어업외소득을 통하여 어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소득수준을 유지하게 하여 어업인의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청년의 유입을 도울 수 있다.

셋째,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의 문화적 활성화란 지역고유의 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바다와 접하여 생활하는 어촌은 내륙도시와는 다른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촌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생성·발전된 우리의 고유문화를 보전하는 차원이나,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계승 및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 어촌관광은 어촌문화를 도시민과 어촌주민의 교류를 통해, 혹은 관광상품으로의 개발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전파 및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어촌관광을 통한 교류의 활성화는 어촌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전달함으로써 지역의 지명도를 높이거나, 도시민이 어촌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촌관광상품을 기획 및 준비하면서 외부의 선진 기술 및 지식을 내부화하고, 어촌 주민이 방문객들의 생활양식을 접함으로써 삶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2-6]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3) 어촌자원 검토

① 어촌과 어촌관광자원

최근, 관광객들의 관광활동 대상이 다양화 되면서 이들의 관광활동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광자원 대상 또한 자연자원에서 지역의 인문·사회환경, 생활문화양식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관광개발의 정책방향 또한 단순한 개발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관광을 통한 자원의 보호와 더불어 지역의 활성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촌의 관광사업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관광자원의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어촌의 관광자원을 분류해 보면 <표 2-11>과 같이 크게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 산업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색에 따라 각기 다른 자원들이 어촌지역에 산재해 있다.

【표 2-11】 어촌관련 관광자원의 분류

구 분	관 광 자 원
자 연 자 원	·해수욕장, 철새 도래지, 갯벌, 해안경관지, 바다낚시터
문 화 자 원	·지역축제, 어촌 사적지, 어촌민속관, 해양유물 전시관
사 회 자 원	·풍어제, 어구어법, 바다음식, 어촌
산 업 자 원	·어항, 어장, 방파제, 인공어초, 유어선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연구」, 2001을 재구성함

어촌지역의 자연관광자원으로는 해수욕장, 갯벌, 철새도래지 및 천연기념물, 해안경관지, 바다낚시터, 바다길 갈라짐 등이 있으며 인문 관광자원 중에서 사회문화자원으로는 지역축제(풍어제, 영등제 등), 음식문화, 전래 어구어법, 어촌의 문화사적 및 유적지와 어촌촌락 등이 있다. 이밖에 산업자원으로서는 수산업에 많이 쓰이는 어항, 양식장, 유어선(낚싯배), 유선(遊船, 놀이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관광자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2-12>와 같다.

표 2-12 어촌지역 관광자원의 개황

분류	자 원 명		주요 자원
자연 자원	해 수 욕 장		서해 110, 남해 97, 동해 147, 총 356개소
	철새도래지		국제적 중요철새 3종 이상 연안 도래지 20개소
	갯 별		2,815km ² (세계 5대 갯벌의 하나)
	해양스포츠 장소		요트장 해안 7개소 등 종목별 다수 보유
	해안경관지		해상(안) 국립공원 2648.54km ² 일출/일몰지, 도서(3,200여개), 기암괴석
	바다낚시터		전국 연안
	기 타		바다 갈라짐 등
인문 자원	사회문화 자원	민속시설 전시 등	어촌민속관, 해양유물전시관 등
		지역축제	각 연안지역 별 72개
		바다음식	각 연안지역별 소재 다양
		어구어법	각 연안지역별 소재 다양
		어 촌	4,000여개의 자연부락 어촌
	산업 자원	어 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규모어항, 포구 등
		어 장	각 연안지선(수산자원보호구역, 양식산란장, 회유로 등)
		유어선	2,800여척

자료 : 해양수산부, 전게서, 2001.

② 어촌지역의 유·무형 문화재 관광자원

어촌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중 유·무형의 문화재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표 2-13>과 같다. 어촌지역에는 어촌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문화자원이 매우 다양하며 이밖에도 강화도 갯벌, 백령도 물범 등의 생태자원 또한 매우 풍부하다. 현재 관광활동의 추세가 단순히 보고 즐기는 데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관광과 교육을 상호 연계시키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촌의 이러한 관광자원들은 향후 어촌관광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 표 2-13 | 어촌지역의 유·무형 문화재 관광자원화 현황

구 분		유무형 문화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척화비, 죽전왜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분오리 돈대, 남장포대, 초지진
	옹진군	감람암, 물범, 신도, 사빈, 콩돌해안, 두무진(서해의 해금강)
울산광역시		처용암, 주전봉수대, 방기리 알바위
강 원 도	강릉시	강릉단오제, 청학동 소금강, 해운정
	동해시	동해어달산봉수대
	삼척시	삼척죽서루, 삼척대이리동굴지대, 삼척초당동굴 외
	속초시	금강굴, 토왕성, 간돌림, 대포성토
	고성군	청간정, 천학정, 간성향교, 불이문, 전통가옥, 건봉사지, 왕곡마을, 능파교, 홍교, 연안김씨열녀비, 화암사, 건봉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 내파수도
	홍성군	마애석불
	보령시	보령독산리 독살, 죽도앞바다 고려청자, 상록수림
	당진군	송산회화나무, 안섬풍어제
	서천군	한산세모시짜기, 한산소곡주, 자산팔읍길쌈놀이, 서천대목장, 서천부채장, 가정목은선생문집판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릉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경상남도	고성군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 낙동강하류철새 도래지, 안골포 굴강, 거북선
	남해군	물건방조어부림, 미조상록수림, 남해 선구 줄꽃기
	통영시	남해안별신굿, 홍도팽이갈매기 번식지
	하동군	하동송림
전라북도	부안군	풍어제, 위도띠벤틀놀이(중요무형문화재)
	고창군	고창청계리청자요지, 삼인리송악
전라남도	완도군	장도 청해진 유적, 정도리 구계등, 주도 상록수림, 예송리 상록수림, 미라리 상록수림, 맹선리 상록수림
	진도군	진도의 바닷길, 백조도래지
	장흥군	여수 영당 풍어굿
	고흥군	봉래면 상록수림
제 주 도	남제주군	성산일출봉, 마라도
	북제주군	제주도 용암동굴지대
	서귀포시	서귀포층패류화석, 무태장어식지, 삼도파초일엽자생지, 문섬 및 범섬천연보호구역, 제주삼다관, 제주오름

자료 : 해양수산부, 「도시·어촌 교류를 통한 어촌지역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2005.

3. 어촌관광 현황 분석

1) 어촌관광의 특성 및 유형

(1) 어촌관광의 정의

어촌관광의 특성 및 실태 파악에 앞서, 어떠한 관광형태를 어촌관광으로 볼 것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어촌관광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어촌관광의 정의는 <표 2-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14 |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어촌관광의 정의

구 분	연도/기관	정 의	기준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2000년/ 황기형· 이승우	어촌관광은 어촌에 부존하는 미활용 자원을 대상으로, 어촌 주민의 복지 및 관광객의 효용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활동을 의미한다.	소재 목적
어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2001년/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어촌관광은 해양과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소재 목적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방안 연구	2001년/ 김성귀 외 2인	어촌관광은 해양관광의 하위 관광으로서, 어촌의 바다와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일어나는 관광·레저·스포츠 목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소재 목적
어촌관광 진흥 종합대책	2004년/ 해양수산부	어촌관광은 현지 어업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역특성·자연경관·어업자원 등과 기존 어항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어가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관광형태이다.	주체 소재 목적

이를 살펴보면, 어촌관광에 대한 정의는 소재 측면에서 어촌의 부존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이라는 점이 동일하나, 목적 측면에서는 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에 중점을 두거나 혹은 관광객의 효용에 중점을 두는 경우로 나뉘고 있다. 한편 어촌관광의 주관부처였던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에

서 2004년에 발표한 “어촌관광 진흥 종합대책”에서는 어촌관광을 어촌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으나, 주체를 현지 어업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대책은 어업여건 악화로 야기되는 어업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어업의 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경우, 어촌에 거주하지만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어촌 지역주민에 의한 관광활동은 어촌관광에서 제외되는 등 어촌관광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정의들은 어촌관광의 태생적 목적이나 본 연구의 주제인 어촌 활성화 측면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어촌관광의 개발방향 및 실천 전략 설정에 영향을 미쳐 어촌관광의 역할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촌관광을 <표 2-15>와 같이 정의내리고자 한다. 즉 어촌관광은 생활공간이자 ‘어업’이라는 생산활동 공간인 어촌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어촌주민들이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관광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어촌은 생산활동과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정주체계상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는 마을을 의미하며, 이때 생산활동은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와 함께 농업 등과 겸업하는 형태도 포함된다.

어촌과 바다의 자원은 수산자원, 생산기반 등의 수산시설, 풍어제 등 어촌의 고유문화 혹은 아름다운 해안 경관, 드라마 촬영지 혹은 이순신장군 유적 등 역사유산을 포함한다.

어촌관광 실행 주체는 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어촌에 거주하며 공동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 어촌지역 거주민이면 된다. 그리고 어촌관광의 목적은 어업여건 악화와 열악한 어촌 정주여건으로 어촌을 이탈하는 이들이 늘고 거주민이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공간과 생산공간으로서 어촌의 경쟁력을 회복시켜 어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 표 2-15 | 어촌활성화 측면에서 바라 본 어촌관광의 정의

구 분	정 의
지 역	어촌(생산활동과 생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동체)
주 체	어촌 거주민(어업인, 비어업인)
소 재	어촌과 바다 자원(자연자원, 인문자원)
목 적	어촌의 활성화(소득 및 인구 증대)

즉 어촌관광은 어촌의 생산 및 생활기능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이러한 어촌의 고유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면서 동시에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의 도시자본이 유입되는 해양관광단지에서의 관광활동이 아니라 어촌주민과 함께하는 관광활동이어야 한다. 한편 주체를 어업인 뿐만 아니라 비어업인을 포함시킴으로써 귀어인(歸漁人)이나 귀향인(歸鄉人)들에 의한 어촌개발의 여지를 열어두어야 한다.⁵⁾ 그리고 어촌관광은 어촌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연안의 다양한 자원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2) 어촌관광의 특성

어촌관광을 통해 어촌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촌관광 자체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사한 성격의 농촌관광과 해양관광과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어촌관광은 1차산업이 이루어지는 농어촌에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농촌관광과 비슷하며, 바다와 인접한 연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해양관광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어촌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촌관광사업이 자칫 어업활동의 중단과 어촌사회의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서는 어촌관

5) 여기서 귀어인(歸漁人)이란 어촌생활을 경험한 적이 없는 도시민으로서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하고, 귀향인(歸鄉人)이란 어촌이 고향인 도시민으로서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광을 농촌관광과 해양관광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어촌관광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어촌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녀야 할 어촌관광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어촌관광과 농촌관광의 비교 분석

농촌관광은 어촌관광과 그 태생이 유사하다. 즉 전통적인 농업정책에만 의지해서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소득의 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농촌관광을 정부차원에서 개발하게 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한편 농촌관광의 정의는 “농촌성(rurality)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활동으로 도시민들이 농촌다움이 보존된 농촌에 머물면서 그곳의 생활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농가가 주체가 되어 농촌의 고유한 특성을 제공하는 관광활동이며,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어촌관광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16>은 어촌관광과 농촌관광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농촌관광과 어촌관광의 발생배경 및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농촌과 어촌이라는 공간과 어업과 농업이라는 산업의 차이로 인해 관광활동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표 2-16 | 어촌관광과 농촌관광의 공통점 및 차이점

구 분		어촌관광	농촌관광
차이점	소재	어촌 및 어업자원 해양자원 어촌자원의 공동재산적 특성	농촌 및 농업자원 농촌의 자연환경 농촌자원의 개인소유적 특성
공통점	목적	농어촌 활성화	
	성격	소규모 체험·교육·휴양 중심 관광	
	공급주체	농어촌 주민이 주체	
	시설	기존의 소규모 여유시설 이용 혹은 소규모 투자	
	대상	가족, 동호인, 학생	
	교류	관광객과 농(산)어촌 주민과 적극적인 교류	

앞에서 농촌관광과 어촌관광은 농촌과 어촌이라는 공간 자체의 차이이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농업과 어업이라는 산업의 차이로 인하여 관광형태가 변하게 됨을 언급하였다. <표 2-17>은 그 차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산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은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에 비해 작업이 위험하고 고된 편으로, 어선어업 체험을 위해서는 보험상품 개발 및 안전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체험이 용이한 맨손어업을 중심으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활동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추운겨울과 무더운 여름에는 체험활동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논·밭 등의 농업자원은 개인소유인 반면, 방파제·어장 등의 어업자원은 마을 공동의 자산이라는 차이가 있다.

농촌관광의 경우 농산물 수확 후 껌만들기, 장담그기 등 가공식품 만들기가 주요한 체험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어촌관광은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체험활동이 적은 편이다. 반면 어촌은 어업과 농업을 겸업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어업체험과 함께 농업체험을 병행한다면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2-17】 농촌관광과 어촌관광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

구 분	어촌관광	농촌관광
산업 측면 (농업 vs. 어업)	어업 체험 어려움	농업 체험 용이
	- 참여활동이 맨손어업으로 한정됨 - 작업의 위험도 高, 작업이 고됨 - 기반시설이 필요함	- 농산물 수확 및 장담그기 등 가공 과정을 상품화함 - 작업의 위험도 低
	어업 이외 업종과 겸업 성행	농업 중심
	- 대부분 겸업으로 농(산)촌관광도 가능	- 농업관광 중심
공간 측면 (농촌/농경지 vs. 연안/어촌)	어촌 환경 다양	농촌 환경 단순
	- 해양·해변·육상 환경 고루 갖춰 다양한 경관을 즐길 수 있음 - 해양·해변은 어업 이외 다양한 활동으로 활용 가능	- 농경지와 거주지로 구성 - 간혹 하천이나 산 활용 가능
	미활용의 (생태)자원 풍부	재배 작물의 다양화
	- 머드, 소금, 해수, 심층수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 - 물범, 고래, 철새 등 생태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농경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음
	어촌자원의 공동재산적 특성	농촌자원의 개인재산적 특성
	-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어장, 어항, 방풍림 등은 대부분 어촌계 공동재산적 특성을 가짐	- 체험활동 대상지인 농지, 농장은 대부분 개인소유임

어촌관광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점이지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양, 해변, 평야, 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업시기와 레저활동시기가 겹치지 않는다면, 현재 어업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해양 및 해변을 어한기(漁閑期)에 관광객에게 레저활동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업외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어촌은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머드(mud), 소금, 해수, 심층수 등 다양한 자원과 물범, 고래, 철새 등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어촌관광활동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농촌관광과 차이가 있는 어촌관광의 특성은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및 자원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어촌관광이 흔히 이루어지는 마을어장, 어항, 해변, 방풍림 등은 대부분 어촌계의 공동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여 어촌관광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촌계 등 마을의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주민의 화합과 참여가 잘 되는 곳에서 어촌관광이 성공하기 유리하다. 반면 농촌관광은 주된 활동지인 농경지, 농장 등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기가 수월하다.

② 어촌관광과 해양관광 비교 분석

해양관광이란 일상에서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해역과 연안에 접한 단위 지역사회(리·동)에서 일어나는 관광 목적의 행동으로, 직·간접적으로 해양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된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어촌관광을 해양관광의 하위개념의 관광형태로 볼 수도 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표 2-18>은 해양관광과 어촌관광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해양관광과 어촌관광은 모두 바다자원을 이용한 관광이므로 활동형태가 유사하나 앞에서 언급한 어촌관광의 정의에 의해, 어촌 주민이 공급 주체가 되어 소규모 투자를 통하여 체험·교육·휴양 활동을 제공한다는 점이 해양관광과 다르다.

결론적으로 어촌관광과 해양관광은 관광 활동 측면에서 구분하기는 어렵고, 관광의 주체가 누구인지 혹은 관광활동의 효과가 내부로 유입되는지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 즉 관광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어촌 주민이고 그 효과가 어촌으로 유입된다면 어촌관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2-18】 어촌관광과 해양관광의 공통점 및 차이점

구 분		어촌관광	해양관광
공통점	소재	바다자원을 이용한 관광	
차이점	성격	소규모 체험·교육·휴양 중심관광	스포츠, 레저 중심 관광
	공간	어촌공간에 국한	모든 연안 공간
	투자 규모	기존 수산관련 투자의 연장 혹은 소규모 순수 관광투자	대규모 투자
	공급 주체	어촌 주민이 주체	관광사 혹은 해양레저업체 (어촌 주민은 보조자 혹은 방관자)
	시설	기존 소규모 여유시설 이용 (기존시설의 연장 혹은 소규모 투자)	대규모 시설이 많음
	대상	가족, 동호인, 학생	일반 관광객
	교류	어촌 주민과의 적극적 교류	어촌 주민과의 단절 혹은 소극적 교류

자료 : 김성귀·홍장원·박상우,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p. 31.을 토대로 재작성함

③ 어촌관광의 특성

앞서 살펴본 바대로, 해양관광은 관광활동의 소재측면에서 해양자원을 이용한다는 점이 유사하나 어촌 주민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어업 혹은 어촌 자체를 체험하는 소규모 체험·교육·휴양 중심의 관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어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편 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주도가 되어 농어촌문화 혹은 농어업을 체험하는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어촌관광은 농촌관광과 유사하다. 그러나 어업활동은 농업활동에 체험할 수 있는 작업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농촌에 비해 지리적으로 도시에서 접근하기 어렵고(특히 도서지역), 어업인구가 적다는 점도 어촌관광사업에 있어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관광객들이 유사한 성격의 농촌관광이 아닌 어촌관광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촌의 다양한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촌관광과 농촌관광은 공간이나 관련 산업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목적이나 관광성격 측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어촌관광과 농촌관광을 서로 연계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체험활동을 다양화시킴으로써 관광상품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어촌마을은 대부분 농촌마을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촌관광마을과 농촌관광마을의 연계는 지리적으로 가능하다.

이상 농촌관광 및 해양관광과의 비교분석함으로써 도출한 어촌관광의 특성은 다음 같다.

첫째, 어촌관광은 어촌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지역자본 혹은 정부지원에 의한 투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어촌은 생산공동체로서 대부분의 자원이 공동재산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어촌관광은 개인 단독으로 행해지기보다는 어촌계 혹은 마을 단위로 행해지며, 어촌계원 혹은 마을 청년회가 주도하도록 한다.

셋째, 어촌관광은 어업체험과 함께 생태·해양자원, 어장, 어선, 어항 등 어업기반시설 등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한 해양 레저·스포츠활동도 가능하다.

넷째, 어촌은 대부분 어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겸업으로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농촌마을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농촌관광을 함께 실시하거나 농촌관광마을과 연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촌관광이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어촌의 환경, 생태, 경관을 유지·보전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어촌관광의 유형

어촌관광 관련 기존연구에서는 활용자원, 체재유무, 공간, 지형, 관광활동 등의 기준으로 어촌관광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 중 관광활동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 의하면 어촌관광은 수산물 구매·시식형, 바다낚시형, 해수

육형, 생태체험형, 해양스포츠형, 어촌경관형, 어촌역사문화형 등 7가지 형태로 나뉜다.

【표 2-19】 기존연구에서 분류한 어촌관광 유형

기준	유형 분류	
활용자원	자연자원 우세형	대부분
	인문자원 우세형	풍어제 등의 문화자원 활용
체재유무	경유형	대부분
	목적형(체재형)	하계 휴가철 해수욕객 대상
공 간	근교형	수도권 인근 어촌지역
	연안형	대부분 어촌지역
	도서형	경관이 수려한 도서지역
지 형	암석 해안형	갯바위 낚시 대상
	비치형	해수욕객 대상
	갯벌형	생태체험 활동
	혼합형	2개 이상 혼합
관광활동	수산물 구매·시식형	가장 흔한 유형으로, 수산물을 가공·판매·유통
	바다낚시형	어자원이 풍부한 어촌(갯바위, 도서 등)
	해수욕형	해변이 발달한 어촌
	생태체험형	철새, 갯벌 등 생태체험이 가능한 어촌
	해양스포츠형	해양스포츠가 가능한 어촌
	어촌경관형	일출/일몰, 해할(海割), 다도해, 기암괴석 등 해안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어촌
	어촌역사문화형	사적, 축제, 제의, 문화제 등이 유·무형의 역사·문화재원을 보유한 어촌

자료 : 김성귀·홍장원·박상우, 전거서 p. 42~46을 도식화 함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중 관광활동을 기준으로 한 유형분류를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8가지 형태로 어촌관광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분류한 생태체험형은 해양생태(동식물 등) 관찰과 함께 갯벌 체험과 어업체험을 포함하고 있는데, 갯벌체험과 어업체험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어촌관광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세분화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생태체험형을 생태관찰형, 갯벌체험형, 어업체

험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어촌관광에서 해양스포츠활동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수욕형과 해양스포츠형을 함께 묶어 해양레저스포츠형으로 분류하였다.

| 표 2- | 어촌관광 유형

기존연구 어촌관광 유형	본 연구 어촌관광 유형	
	유형	설명
수산물 구매·시식형	수산물 구매·시식형	수산물 가공·판매·유통 등
바다낚시형	바다낚시형	갯바위낚시, 유어장낚시, 선상낚시 등
어촌경관형	어촌경관형	유람선, 다도해, 일출/일몰 등 감상
어촌역사문화형	어촌역사문화형	어촌축제, 풍어제, 사적 등의 문화재 등
해수욕형	해양레저스포츠형	해수욕, 스킨스쿠버 등
해양스포츠형		
생태체험형	생태관찰형	철새, 물범, 습지 등
	갯벌체험형	조개줍기, 갯벌생태교육, 머드체험 등
	어업체험형	개매기, 독살, 정치망, 양식어업 등

한편, <표 2-21>은 유형별로 어촌관광이 어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정리한 것이다. 갯벌체험형이나 생태관찰형은 교육 및 체험의 성격이 강한 관광유형으로 어촌의 자연 보전 교육 및 활동을 통해 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갯벌체험의 경우 머드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업체험형 관광은 어업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 주고, 어업에 관한 기초수준의 실습교육 효과를 낸다. 이는 향후에 수산물 소비의 증대, 수산정책에 대한 이해 형성, 어업으로의 진출 가능성 증대 등을 통해 어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바다낚시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즐기는 해양레저활동으로 유어선 및 유어장을 통해 어업인들이 손쉽게 접근 가능한 어업외소득 사업이다.

해양레저스포츠형은 해수욕장, 스킨스쿠버, 요트 등의 활동을 말하며,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활동을 어촌관광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촌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측면도 필요한데, 어촌역사문화형 관광을 통해 어촌문화를 개발하거나 확산시킬 수 있다. 또한 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사적지 등의 역사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광 가이드 및 해설자로 활용한다면 지역홍보과 함께 어촌주민의 애향심 및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어촌경관형은 어촌이 가지고 있는 경관을 이용한 관광형태이므로 적은 투자로도 해돋이·해넘이 축제 등의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유형이다.

수산물 구매 및 시식형은 대도시 근교의 경우 가장 큰 집객효과를 가져다 주는 유형이며, 어항에 입지하고 있는 직판장이나 식당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거나 시식한다. 이 유형은 가공산업과 연계하거나 유통을 개선함으로써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다.

|표 2-22| 어촌관광 유형별 어촌활성화 가능성

유형	어촌활성화 가능성
갯벌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보존을 통한 지속적 개발 가능 - 갯벌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 가능 - 다양한 먹거리 창출
어업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에 대한 친밀감 형성 - 수산업에 관한 기초교육 효과 - 어선의 환경개선
바다낚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쉬운 어업외소득원으로 소득증대 기여 - 교류공간 형성
생태관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보존을 통한 지속적 개발 가능 - 지역환경브랜드 창출
해양레저스포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관광형태임 - 소득창출형 친수공간
어촌역사문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의 문화 개발 및 확산 - 지역의 역사의식 및 애향심 고취 - 지역문화 브랜드 창출
어촌경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은 비용으로 도시·어촌 교류 증대 - 교류형 생활복합공간 조성
수산물 구매/시식형	- 어업을 2차 산업과 연결하여 고부가가치화

2) 어촌관광개발사업의 현황

(1) 어촌지역 관광개발사업의 추진과정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중에서 관광관련 사업이 추진된 것은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도입에 따른 농어촌 휴양자원개발사업에서 시작되었다. 한편,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을 통한 관광사업들은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기존 1차 산업과의 연계성 부족과 더불어 관광객 수용을 위한 기반시설 미흡, 관광서비스 마인드 부족 등으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나타냈다.

이후 어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사업은 1990년 ‘어촌관광 소득원개발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7년 이후 어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

이 실시되면서 어촌관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표 2-23】 어촌지역 관광개발사업

구분	사업내용
농어촌휴양자원 개발사업	-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 관광농원 - 농어촌민박사업
어촌관광소득원 개발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촌계대상, 1억원 지원(자담) - 활어횃집, 숙박시설, 휴게소, 유어선 등 단위사업별 지원 -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도 민박, 유어선, 낚시터 등의 어 촌소득기반시설 지원
어촌관광휴양단지 구성사업	- 시·군, 수협, 영어법인 지원 - 사업비규모 30억원 - 숙박시설을 비롯한 종합적 휴양시설 지원
어촌체험(관광)마을 구성사업	- 어촌계 단위, 5억원(자담5%) - 어촌체험 기반시설, 편의시설, 소득시설 지원 불가
어촌관광모델사업	- 어촌관광진흥대책 - 유형별 3가지 어촌·어항개발사업 실시
기타 사업	-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 지역특산어류전시관사업 - 바다목장화사업

한편, 어촌종합개발사업 중 어업인 소득원 개발사업이나 어촌관광휴양 단지 조성사업 등도 어업인의 운영 노하우 부족, 시설의 관리와 채투자 문제, 수익성의 문제 등으로 일부지역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부실 경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는 수익사업을 배제시키고 기반시설 구성과 홍보지원 중심의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이 추진되었다.

2001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은 도시와 어촌의 교류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기반시설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면서 어촌의 소득 다양화와 도시·어촌의 교류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후 어촌관광 진흥대책에 따라 실시된 ‘어촌관광모델사업’과 더불어 ‘어촌민속전시관 건

립사업’, ‘지역특산 어류전시관사업’, ‘바다목장화사업’ 등도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소득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

(2) 어촌지역 관광사업의 추진현황

① 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과 어촌민속전시관 사업

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은 어촌관광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어촌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신청 권역당 30억 원씩 2개년 사업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즉 1990년~1996년까지 추진되었던 어촌관광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서 기존의 어촌관광개발사업이 지역 당 1억 원 정도로 지원금액이 제한됨으로써 어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던 단점을 보완하고 거점식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표 2-24>와 같다.

4개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그 중에서 당진군과 신안군은 영어조합법인이 사업주체이며 해남군과 보성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이다. 지역별 사업비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는 모두 30억원으로 동일하지만 자부담과 민자유치규모에 따라 총괄사업비의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보성군의 경우에는 1993년에 이미 어촌관광휴양단지가 개장·운영 중인 상황에서 민자유치와 자담을 합쳐 추가로 사업을 확장·증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2-24| 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현황

지역	사업비(단위 : 억원)					기간	시행자	규모	시설
	계	국고 용자	지방 비	자부 담	민자 유치				
당진 신평면 매산리	30	15	-	15	-	2000~ 2001	음성영어 조합법인	부지면적: 4,570평 건축면적: 641평	편의시설 : 분수대, 파고라, 정자, 주차장 휴양시설 : 낚시터, 어린이 놀이시설
신안 흑산면진리	58	15	-	43	-	1997~ 2001	(주)보경 영어조합 법인	부지면적: 5,600평 건축면적: 1,275평	해수사우나, 종합체육시설, 주차장, 피크닉장, 조경 및 휴게시설
해남 송지면 갈두리	30	15	15	-	-	2000~ 2001	해남군	부지면적: 4,537평 건축면적: 880평	수산물판매장, 해수풀장, 가족호텔, 테마공원, 보트계류시설
보성 회천면 울포리	70	15	15	-	40	1998~ 2000	보성군	부지면적: 5,450평 건축면적: 796평	가족호텔, 녹차탕증축, 공룡테마공원, 녹차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야외극장, 산책로, 운동시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은 전국 연안의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하는 어촌주민의 정신적·문화적 체험공간으로 1998년부터 추진되었다. 이는 어업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수산, 친해양 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다. 어촌민속전시관의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어촌사회의 문화적 지위향상 및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어업외소득 증대 도모, 둘째,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어업발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발굴·전시함으로써 바다개척에 대한 인식 제고, 셋째, 어촌지역에 산재한 고유민속과 전통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함으로써 어촌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어촌민속전시관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비 60억 원 중에서 국고 50%, 지방비 50%로 하되 국고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표 2-25> 참조).

[표 2-25]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투자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완도군	삼척시	거제시	안산시	영덕군	부산시	제주시	울산시
합계	63,236	6,500	6,000	8,930	8,569	6,949	7,287	12,500	6,501
국비	22,5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
지방비	40,736	3,500	3,000	5,930	5,569	3,949	4,287	9,500	5,001

어촌민속전시관 사업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표 2-26>와 같이 1998년 완도군이 사업을 추진한 이래 2000년도에 완료하여 처음으로 개관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 2개소, 2005년 4개소, 2006년 1개소 등 총 8개소가 개관·운영 중에 있다.

[표 2-26] 어촌민속전시관사업 운영 현황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합계	1	2	0	0	0	4	1	8
시·군	- 완도군	- 거제시 - 삼척시	-	-	-	- 안산시 - 영덕군 - 제주시 - 울산시	-	- 부산시

②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은 어업체험활동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다양화 및 도시와 어촌의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2001년 해양수산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일회성 사업과는 달리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계속사업으로서 어촌지역에 대한 관광사업의 도입을 보다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사업은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관련 사업

중에서 지역주민이 사업의 계획 및 관리·운영까지 직접 관여하는 사업으로 타 관광사업보다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어촌·어항법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및 제49조(사업비의 지원)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34조(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제2항(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사업은 2001년 해양수산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⁶⁾

이 사업의 목표는 2013년까지 총사업비 703억 원을 투입하여 112개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어촌계 단위로 지원되며 사업의 시행주체는 시·도지사이다(<표 2-26> 참조).

【표 2-25】 어촌체험마을사업 추진 개요

구분	사업개요
사업기간	2001년~2013년(2001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
총사업비	703억원
사업규모	112개 어촌체험마을 조성
지원대상	어촌계
사업시행 주체	시·도지사
지원조건	국고보조 50%, 지방비 45%, 자담 5%(개소 당 5억원, 1개년사업)

자료 : 홍장원, “어촌체험관광마을의 발전방향”, 『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1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703억 원 중 2001년부터 2007년 말까지 578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87개 마을이 조성되었다.

6) 2003년부터 본 사업의 명칭은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에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표 2-26|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01 시범사업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7년 이후
사업량		112	9	8	11	12	18	18	11	25
사업비	소계	70,322	9,422	4,000	5,500	6,000	11,000	13,800	8,100	12,500
	보 조	35,161	4,711	2,000	2,750	3,000	5,500	6,900	4,050	6,250
	지방비	31,645	4,240	1,800	2,475	2,700	4,950	6,210	3,645	5,625
	자부담	3,516	471	200	275	300	550	690	405	625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각 연도.

어촌체험마을사업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까지 완공된 64개 마을 중에서 마을운영실적 대장을 작성하고 있는 59개 마을의 방문객 수는 약 512만명이며 이중 약 30%인 156만명이 어촌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체험마을사업을 통한 관광소득은 총 524억원이며 이중 직접 체험소득이 138억원으로 전체 소득의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사업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할 때, 본 사업은 어촌의 소득다양화와 더불어 도시와 어촌의 교류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7|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운영실적

(단위 : 마을, 천명, 백만원)

구분		2006년 (A)	2007년 (B)	전년대비 (C=B-A)	증가율 (%)	2007년 마을당 평균
마을 수		59	59	-	-	-
방문객수		3,521	5,119	1,598	45%	87
체험시설이용객		731	1,556	825	113%	26
관 광 소 득	합계	40,801	52,361	11,560	28%	887
	소계	7,904	13,767	5,863	74%	233
	체험 이용료	-	4,372	4,372	-	74
	민박	-	2,800	2,800	-	47
	식사비	-	3,384	3,384	-	57
	특산품판매	-	3,211	3,211	-	54
	간접소득	32,897	38,594	5,697	17%	654

주 : 1) 2006년까지는 마을별 추정자료가 활용되었고, 2007년부터는 각 마을별 운영실적대장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됨

2) 관광소득은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매출액 개념이며, 사업실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은 파악하기 어려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2001~2007)」, 2008.

③ 어촌관광모델개발사업

어촌관광모델개발사업은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다시 찾는 관광어촌”을 모토로 한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의 수립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본적인 목표는 첫째, 생산기반 위주의 사업지원을 관광기반 중심으로의 전면적인 재편, 둘째,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촌관광수요 창출, 셋째, 어업인 중심의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촌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넷째, 지속가능한 어촌관광 확산을 위한 어업인의 의식전환 유도이다.

어촌관광모델개발사업은 어촌의 복합적 개발을 목표로 I 모델(어촌·어항복합공간), II 모델(다기능어항), III 모델(어촌관광단지)의 3가지 모델을 설정하고 총 24개소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표 2-29> 참조).

|표 2-28| 어촌관광모델개발사업

구 분	I 형(복합공간)	II 형(다기능어항)	III 형(어촌관광단지)
개념	◦기존어항어촌 + 관광기능 ⇒ 어촌·어항복합공간	◦기존어항 + 관광기능 ⇒ 다기능어항	◦기존어촌 + 관광기능 ⇒ 어촌관광단지
사업 대상지	◦7개소(2004. 12. 15선정) 어유정항(인천시 강화군) 정자항(울산시 북구) 안목항(강원도 강릉시) 마량항(전남 강진군) 양포항(경북 포항시) 맥전포항(경남 고성군) 모슬포항(제주도 남제주군)	◦6개소(2004. 10. 25선정) 대변항(부산시 기장군) 대포항(강원도 속초시) 홍원항(충남 서천군) 국동항(전남 여수시) 격포항(전북 부안군) 지세포항(경남 거제시)	◦11개소(2004. 12. 15선정) 대항(부산시 강서구) 초지(인천시 강화군) 대송(울산시 울주군) 전곡(경기도 화성시) 대진(강원도 동해시) 무창포(충남 보령시) 야미도(전북 군산시) 방축(전남 신안군) 전촌(경북 경주시) 학림(경남 통영시) 법환(제주도 서귀포시)
주요 시설	◦Fisherina, 녹지공원 복지회관, 생태체험장	◦Seafood센터, 마리나 해상위락시설, 관광호텔	◦수변공원, 산책로 Seafood센터

어촌관광모델사업의 모델유형별 연차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표 2-30>과 같다. 전체 24개 지구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4,731억 7,6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모델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다. 우선 1모델의 경우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이 중 어항부문에 100억 원, 어촌부문에 50억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2모델의 경우에는 개소 당 500억 원이 투입되며 국가어항부문에 300억 원, 민자유치부문에 200억 원이 투입된다. 3모델의 경우에는 개소 당 60억 원이 지원되며 이 중 국비 30억 원, 도비 30억 원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된다. 모델별 투자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사업은 각 사업의 세부 투자대상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등의 투자비 비중 또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9】 모델 유형별 연차 투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 규모	연차별 투자계획(6개년)						비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24개소 473,176	1 835	(1) 14,536	6(1) 27,950	11(9) 124,720	6(11) 150,510	(12) 154,625		
Ⅰ 모델	계		7개소 107,900	200	11,694	8,760	30,760	30,000	26,486		
	어항 (국가)	기본설계(국비) <여촌포함>	1,340	1	2	4					
				200	380	760				농특회계 복합공간	
		실시설계(국비) <여촌별도>	1,560	1	1	2	3				
				기본 설계 포함	300	500	760			일반회계 국가어항	
		시 설 비(국비)	70,000	1	(1)	2	2(2)	2(2)	(2)	일반회계 국가어항	
	-			11,014	6,000	20,000	20,000	12,986	초년3,000 차년7,000		
	어촌 (지자체)	시설비	소계	35,000			2	3(2)	2(2)	(2)	
			국비보조	17,500			1,500	10,000	10,000	13,500	
			지방비	17,500				750	5,000	5,000	6,750
	Ⅱ 모델	계		6개소 295,691	500	2,000	12,850	71,150	100,000	109,191	
어항 (국가)		기본설계(국비)	2,500	1	4						
				500	2,000					일반회계 국가어항	
		실시설계(국비)	6,000			5	(2)				
						4,850	1,150			일반회계 국가어항	
시 설 비(국비)		287,191			1	5(1)	(6)	(6)			
					8,000	70,000	100,000	109,191	일반, 책특 국가어항		
Ⅲ 모델	계		11개소 69,585	135	842	6,340	22,810	20,510	18,948		
	어촌 (국가 + 지자체)	기본설계(국가)	1,035	2	2	4	3				
				135	200	400	300			일반회계 관광단지	
		홍 보 비(국가)		2,550	402	440	510	510	688	일반회계 관광단지	
		시설비 (지자체)	소계	66,000		1	3	4(3)	4(3)	(4)	
						240	5,500	22,000	20,000	18,260	초년2,000 차년4,000
					국비보조	33,000		120	2,750	11,000	10,000
		지방비	33,000		120	2,750	11,000	10,000	9,130		

어촌지역에서 추진되었던 관광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촌지역 관광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설명한 것처럼 1996년 이전까지의 어촌지역 관광관련 사업은 어촌계를 대상으로 활어횃집, 숙박시설, 관광유어선 등 단위 사업 당 1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1996년 이후에는 투자규모와 확대와 더불어 관광을 테마로 한 종합적 지원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즉 1996년 어촌휴양관광단지사업을 시작으로 어촌민속전시관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어촌관광모델사업 등으로 변화되면서 어촌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어촌과 어항, 배후지역까지 개발하는 등 투자범위와 투자대상이 확대되었다. 특히 2001년 이후 등장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단순히 어촌의 소득증대에서 벗어나 도시와 어촌의 교류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추어 관광사업을 추진한 것이 특징적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어촌관광모델 개발사업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유형의 관광모델을 개발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사업의 성과와 관련된 모니터링사업을 완공지역별로 진행 중에 있다.

【표 2-30】 어촌장거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

구분	사업목적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광수요의 어촌 유치를 통한 어업인의 어업외소득 증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어업지역 관광인프라 개선을 통한 어업외 소득 창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어업인의 소득다양화와 도시어촌의 교류 활성화															
어촌관광모델 개발사업 (1,2,3모델)	어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어촌소득증대와 어촌의 복합적 개발															

주: 검정색 영역은 사업이 실시 완료되었거나, 투자비가 이미 확정된 것을 나타내고, 회색 영역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나 아직 투자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나타냄

3) 어촌체험마을사업의 운영 실태

여기서는 어촌관광사업의 운영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열거한 사업 중에서 어촌민속전시관사업, 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어촌관광모델사업 등은 시군, 수협, 영어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어촌관광소득원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 주민이 주체가 되는 관광형태에 주 대상이 되므로 어촌계 지원한 사업만을 살펴보고자 한다.⁷⁾

<표 2-32>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여 개발한 어촌관광사업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가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위의 3가지 어촌관광사업 중에서 어촌관광소득원사업은 1996년에 완료되어 현재 운영 파악이 어려우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관광이 중심이 된 사업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어촌관광사업 중 어촌체험마을사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⁸⁾

| 표 2-31 | 어촌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어촌관광 개발 사업

구 분	대상	주요사업	사업 진행여부	비고
어촌관광소득원사업	어촌계	관광사업	1996년에 완료	-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계 (권역지원)	어촌정주여건 개선	1990년대에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	-
어촌체험마을사업	어촌계	관광사업	2001년에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	실태조사 실시

(1) 운영 실태조사

2006년까지 선정된 마을은 총 76개소이며 이중 2006년 현재 운영 중인

7) 물론 시군에서 개발한 후 어촌계에게 운영을 맡길 경우 사업의 효과가 어촌으로 돌아오지만 해당사업으로 개발된 시설 중 어촌주민이 운영하는 사업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외시킨다.

8) 실태파악은 해양수산부에서 출간한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2007년)”을 토대로 실시하였다.

마을은 총 60개소이다(<표 2-33> 참조).

【표 2-32】 2006년 현재 운영 중인 어촌체험마을 현황

구분	합계	부산	인천	경기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60	2	3	7	5	7	4	13	6	8	5

이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프로그램은 단일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장 흔히 이루어지는 관광형태는 어업체험형과 바다낚시형이며, 다음으로 갯벌체험과 해양레저스포츠 순이었다. 한편 어촌경관형과 수산물 구매 및 시식형의 경우 별도의 체험상품으로 개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모든 어촌체험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유형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표 2-33】 어촌체험마을의 관광프로그램 유형

유형	어업 체험형	갯벌 체험형	생태 관찰형	해양레저 스포츠형	바다 낚시형	어촌역사 문화형	어촌 경관형	수산물 구매/시식형
개소	49	37	-	16	49	4	9	1

한편 <표 2-35>는 어촌체험마을에서 실시되고 있는 관광프로그램의 유형을 시도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갯벌체험형은 주로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서 실시되고 있었고, 반면 어업체험형과 바다낚시형은 전국적으로 고루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형은 경북, 강원, 전남, 경남이, 어촌경관형은 경남과 제주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표 2-34| 시도별 어촌체험마을의 관광프로그램 유형

유형	부산	인천	경기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갯벌체험형	-	3	6	7	-	4	12	-	5	-
어업체험형	2	2	7	3	5	4	10	6	7	3
바다낚시형	1	3	7	7	5	2	5	6	8	5
생태관찰형	-	-	-	-	-	-	-	-	-	-
해양레저 스포츠형	-	-	-	1	3	-	3	4	3	2
어촌역사 문화형	1	-	-	-	-	-	1	2	-	-
어촌경관형	-	-	-	1	1	1	1	-	2	3
수산물 구매/시식형	-	-	1	-	-	-	-	-	-	-

각 어촌관광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업체험형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촌관광 형태로 각종 어로기법, 어류·패류·해조류 잡기, 어선·어장·어시장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어로기법은 각 지역에서 선조들이 사용하였던 개매기, 독살, 육소장망, 창경바리, 죽방령 등의 전통어로기법을 관광자원화하거나 현재도 사용되는 기법 중에서 통발, 햇불, 대게잡이 등 독특한 어로기법을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그리고 어선에 승선하거나, 어시장의 경매를 견학하고, 가두리양식장을 방문하여 어업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단순 경험에 불과하고, 교육목적의 체험프로그램이라 보기 어려운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수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성이 높일 수 있으므로 관련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갯벌체험은 서남해안의 인천, 경기, 충남, 전남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체험형태는 단순한 바지락, 굴 등 패류채취만을 실시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방문객이 많은 몇몇 지역에서만 생태교육을 실시하거나 갯벌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교육

이 미흡하여 체험프로그램이 갯벌자원 보전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바다낚시는 어업체험과 함께 모든 지역에서 가장 흔히 실시되고 있는 어촌체험 유형이다. 어촌체험마을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갯바위, 선상낚시, 갯벌낚시, 가두리어장 낚시 등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어선어업이나 유어장 낚시 이외는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낚시인의 떡밥사용, 쓰레기 회수 등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해양레저스포츠형은 동해안의 강원, 경북 그리고 남해안의 전남, 경남, 제주도에서 실시되고 있다. 물이 맑고 해중경관이 아름다운 강원도, 경북, 제주도에서는 주로 스킨스쿠버 체험이 일반적이고, 수온이 따뜻하고 해변이 발달한 경남과 전남은 해수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곳은 없으며, 단지 전곡항에서 어촌체험마을사업과는 별도로 어항을 분획하여 일부를 마리나로 조성하고 있다.

어촌역사문화형에는 풍어제 등의 제의(祭儀), 어촌생활, 사적을 포함한 문화재, 어촌에서 개최되는 축제 등이 해당한다. 현재 어촌체험마을에서는 어촌의 독특한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는 거의 없고, 체험프로그램도 어촌민박 혹은 단순한 어촌생활 체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사업을 통해 어촌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문화재 혹은 문화를 소개할 인재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촌경관형은 유람선을 이용하거나 산책로를 조성하여 다도해, 기암괴석 등을 감상하는 것으로, 이들 자원이 풍부하고 해안경관이 수려한 경남과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의 어촌에서는 바다 혹은 어촌을 대상으로 한 경관감상이 가능하므로, 도시에서 즐길 수 없는 해돋이, 해넘이, 기암괴석, 해안경관, 어항경관, 어촌풍경, 출어 및 어업경관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산물 시식 및 구매를 어촌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마을은 전통 음식만들기 체험을 하는 궁평리 어촌체험마을이 유일하다. 그러나 수산물 구매는 직판장과 같은 건물이 없더라도 인터넷과 택배로 가능하므로 어촌체험 마을에서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판매방법을 개발한다면 어촌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갯벌생태체험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생태관찰을 실시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은 현재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철새를 비롯하여 순천만 습지, 백령도 물범, 울산 고래 등 생태관광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생태관광을 위해 필요한 관련 동·식물의 습성 및 생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경영 노하우를 어촌 주민이 스스로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특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정부 및 민간단체의 협조를 통해 생태전문가와 연계한다면 생태자원의 보전적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사업을 통해 농(산)촌 체험도 가능한 어촌지역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06년 현재 운영 중인 어촌체험마을 중 10곳에서 농업체험, 등산, 도예 및 문화체험, 역사체험, 경비행기 및 자전거 관광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농업과 등산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표 2-36> 참조).

【표 2-35】 어촌체험마을에서의 어촌관광 이외 관광프로그램

지 역	어촌관광 이외 관광형태	내용
경기 안산 선감마을	농업체험	포도따기
경기 안산 종현동마을	농업체험	포도따기
전북 고창 하전마을	등산	선운산 등산
전북 군산 장자도마을	등산, 자전거	등산, 자전거 일주
전남 영광 두우마을	농업체험	대파김매기
전남 진도 죽림마을	등산, 문화체험	국립남도국악원 문화체험 여귀산 등산
전남 함평 석두마을	문화체험	도예체험
전남 해남 오산마을	농촌체험	농촌체험
경북 영덕 대진마을	경비행기	경비행기 탑승(1인 3만원)
경남 고성 동화마을	역사체험	소을비포성지, 좌이산봉수대 탐방

(2) 어촌관광의 문제점

어촌체험마을은 어업체험과 바다낚시를 중심으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연안 여건에 따라 갯벌체험과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산물 구매·시식, 어촌 역사문화, 어촌 경관, 생태관찰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 중 수산물을 이용한 체험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어촌 역사문화체험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개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촌체험마을에서는 농촌체험, 등산, 문화·역사체험 등 어촌관광 이외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표 2-37>은 어촌체험마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어촌관광유형별 문제점을 나타낸 것이다. 어촌활성화 측면에서 갯벌체험형과 생태관찰형 어촌관광은 생태교육이 부족하며, 어업체험형 어촌관광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업실습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고, 어촌역사문화형, 어촌경관형, 수산물 구매 및 시식형 어촌관광은 자원을 관광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바다낚시형 어촌관광은 안전 및 해양환경 의식이 필요하고, 해양레저스포츠형 어촌관광은 어업공간을 레저공간으로 활용

하여야 할 것이다.

| 표 2-38 | 어촌관광 유형별 문제점

유형	문 제 점
갯벌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시 갯벌생태교육 미흡 - 지속가능한 체험시스템 구축 필요 - 활동이 너무 단순함(패류채취 중심)
어업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 어업실습이 가능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종류는 다양하나 즐기는 상품으로 발전시키지 못함 - 안전 의식 및 교육, 긴급상황 대처능력 부족
바다낚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의식 교육 필요 - 긴급구조 시스템이 없음
생태관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생태자원에 대한 인식 및 자부심 부족 - 생태자원의 관광상품화와 동시에 보전교육 필요
해양레저스포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 어장 등 수산업을 공간을 레저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확대 가능
어촌역사문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의 문화를 관광상품화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를 개발·전승할 사람 및 단체가 없음 - 사적지 등 문화재를 홍보할 가이드 부족
어촌경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을 관광상품화(축제 등)하는데 미흡함
수산물구매/시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독특한 음식을 관광상품화하지 못함 - 수산물 가공식품을 관광상품화하지 못함 - 인터넷 등 다양한 유통형태를 이용하지 못함

제 3 장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국내·외 사례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활성화 사례분석에서 국내사례는 관광사업의 도입을 통하여 어촌/농촌지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이 개선된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해외 사례는 어촌사회의 구조와 변화과정, 어업활동 여건 등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일본의 어촌지역 활성화정책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해보도록 한다.

1. 국내 어촌활성화 사례분석

1) 전라북도 고창군 하전 어촌체험마을의 갯벌체험상품

(1) 마을 개요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은 255가구에 630명이 거주하는 어촌지역으로 어촌계원은 170명이다. 하전마을은 2003년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으며 2004년부터 갯벌자원을 중심으로 어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1] 고창군 하전 어촌체험마을 전경

서해안의 갯벌자원을 중심테마로 한 하전마을의 주요 체험시설로는 관광객안내와 더불어 샤워공간, 교육공간이 함께 마련된 갯벌체험안내센터와 더불어 갯벌택시, 갯벌 체험장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표 3-1> 참조).

| 표 3-1 | 하전 어촌체험마을 체험시설

구 분	현황
체험시설	갯벌체험안내센터(504㎡), 갯벌체험장/갯벌축구장(10ha)
편의시설	매점, 관광정보센터, 샤워시설, 주차장(1,983㎡), 식사시설(5개소)
민박가구	4가구(총 9개 객실, 수용인원 65명)
체험마을사업 참여인원	10명

(2) 어촌체험마을 운영 프로그램

하전마을의 중심 체험테마는 바지락 캐기와 정치망 어업체험이다. 하전마을에서는 계절에 따라 당일과 숙박형으로 체험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일의 경우 프로그램 소요시간에 따라 체험 프로그램을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갯벌체험과 더불어 축제식 양식장 견학, 정치망 어장 견학 등 체험관찰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또한 경운기를 개조한 갯벌택시를 개발하여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전마을은 마을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시키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으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갯벌체험 유의사항을 기록한 관리현장도 마련하였다.

- 체험장 이용 시 반드시 안내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체험장 근처 바위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 갯벌에서 조개를 잡을 때 갈퀴로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 같은 동료끼리는 반드시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
-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지 말고 되가져와야 한다.

| 표 3-2 | 고창군 하전마을 어촌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내용 및 효과	프로그램 운영인원 (1일 기준)	관광객 (방문객 총수)	체험프로그램	
					1인당 이용요금	이용객 총 수
공통	갯벌체험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 사전교육 및 갯벌이야기 · 갯벌체험에 필요한 준비물 지급 (장화, 갈퀴) · 안내센터 샤워장 이용 · 갯벌스포츠(발야구, 씨름, 줄다리기, 족구 등) 	-	-	-	-
봄 (3-5월)	갯벌생태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지락캐기 체험 (어른:1.5kg, 어린이:1kg) · 갯벌드라이브(갯벌택시·버스) · 정치망어장(어업)체험 · 정치망으로 어획한 승어 맛보기 	5인	5,450	소인 7,000원 대인 12,000원	5,240
여름 (6-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뱅이, 소라, 민꽃게(돌게)잡이 · 골뱅이 등 삶아먹기 	10인	16,540	"	16,380
가을 (9-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망어장(어업)체험 · 정치망으로 어획한 승어맛보기 · 고구마 삶아먹기 	10인	8,820	"	8,758
겨울 (12-2월)	"	"	5-10인	290	"	233
숙박형 (1박2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3식 : 장어구이 백반 승어구이백반, 바지락국백반 · 계절별 굴구이 또는 조개구이 · 선운산 오르기 	5-10인	-	-	-

자료 : 고창군청 내부자료

어촌체험관광마을의 운영은 관리원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험마을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하전마을의 어업인들은 자원조성 및 홍보협조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마을의 홍보를 위해서는 정보화마을의 지정에 따라 하전마을을 홍보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하전마을 어업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어촌체험행사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수산물판매사업도 병행하고 있다(<그

림 3-2> 참조).



[그림 3-2] 하전 어촌체험관광마을 홈페이지

(3) 어촌체험마을사업 운영성과와 성공전략

하전마을의 어촌체험마을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체험마을 운영 첫해였던 2004년 16,000명이 방문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3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고 2007년에는 35,000명으로 집계되어 방문객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체험사업을 통한 소득의 경우, 2007년을 기준으로 2억 6천 5백만 원의 체험소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되어 1인당 평균 8천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3 | 하전 어촌체험마을 운영 성과

구분	방문객수(인)	체험시설 이용객(인)	체험소득(원)	간접소득(원)	비고
2004년	16,000	13,000	80,000,000	8,000,000	
2005년	30,600	30,281	119,686,000	12,000,000	
2006년	31,100	30,611	209,717,000	15,000,000	
2007년	35,000	32,600	265,000,000	-	

자료 : 고창군청 내부자료

하전 어촌체험마을의 성공요인을 체험자원/시설관리, 방문객관리, 서비스관리 등의 측면으로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표 3-4 | 하전 어촌체험마을의 성공요인 평가

구분	성공요인 분석
체험자원/시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휴식년제와 갯벌생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체험자원의 지속적 관리 · 어촌체험마을사업과 정보화마을사업의 병행을 통한 정부지원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어촌체험마을사업과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방문객 관리/서비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마을사업 전담 조직 운영 · 홍보전담반 구성 및 홍보캠페인 개최
지역주민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마을 교육이수

하전 어촌체험마을은 체험자원·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어장휴식년제 도입, 갯벌생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촌체험마을사업과 정보화마을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하전마을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4인)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방문객 시장을 전라·경상권(전체 방문객의 75%)뿐만 아니라 경기·서울·충남권(전체 방문객의 25%)까지 확대시켜 체험마을사업의 수요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어촌체험관광프로그램의 특성상 체험관광객은 여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절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어촌관광의 계절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고창군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관광상품을 구성하거나 지역축제와 어촌체험프로그램을 연계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지역 내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수산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어촌체험상품의 계절성을 극복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하전마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촌관광상품 운영교육이나 관광서비스마인드 함양 교육, 체험마을성가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하여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하는 체제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2) 경기도 안산시 선감 어촌체험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1) 마을 개요

경기도 안산시 선감마을은 수도권에 입지하여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체험관광객의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선감어촌 체험마을은 2004년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118가구 중 어업가구가 95가구로 어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선감어촌마을의 어촌계원은 총 521명이며 이 중 남자가 416명, 여자가 105명이고 어촌계원 중 120명이 어촌 체험마을 사업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3-3] 선감 어촌체험마을 전경

선감 어촌체험마을의 어촌체험시설은 <표 3-4>와 같다.

| 표 3-5 | 선감 어촌체험마을 체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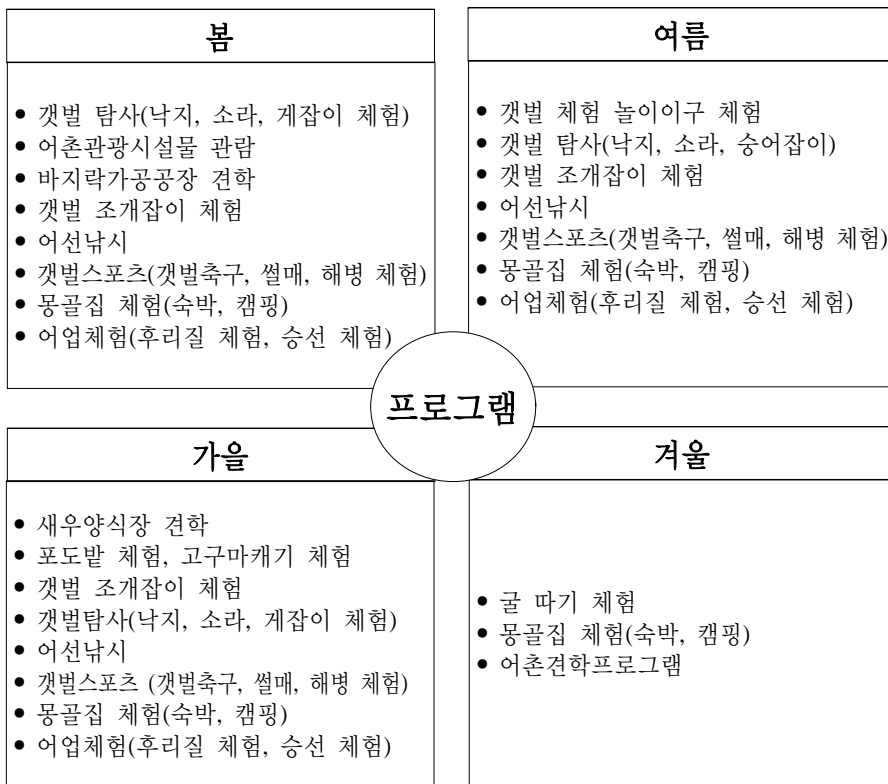
구 분	시설현황
체험시설	종합안내소(2층, 647㎡, 안내소,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갯벌진입로(3,200m)
편의시설	식당, 세족장, 몽고집(게르), 물놀이시설
체험마을사업 참여인원	120명



[그림 3-4] 선감마을의 어촌체험시설 현황

(3) 어촌관광 프로그램 보유 현황

선감마을의 어촌체험프로그램은 서해안의 갯벌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어촌체험프로그램은 각 계절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해안의 계절적 특성상 겨울철에는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그림 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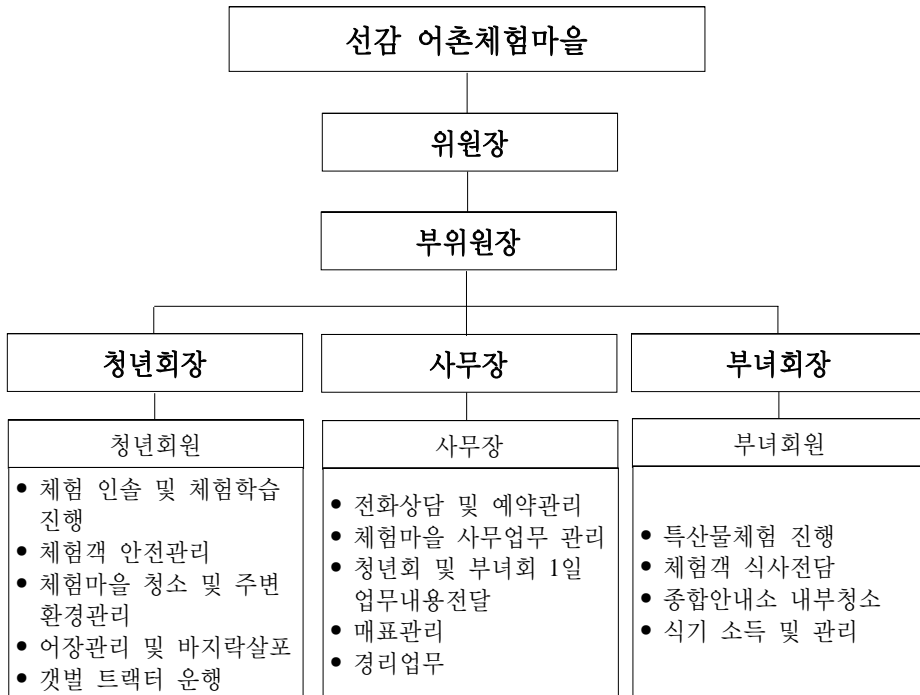


[그림 3-5] 선감마을의 어촌체험프로그램

(4) 체험마을 조직구성과 활동내용

선감 어촌체험마을의 운영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감마을은 마을주

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체험마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주민의 참여는 크게 청년회, 사무장, 부녀회의 3개 조직으로 구분하고 세부조직에 따라 각기 다른 업무를 담당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그림 3-6> 참조).



[그림 3-6] 선감 어촌체험마을의 체험마을 운영조직

(5) 어촌체험마을사업 운영성과와 성공전략

선감마을의 어촌체험마을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수도권을 배후시장으로 하는 지리적 특성상 방문객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2007년 연간 방문객 규모는 7만 8천 여 명을 기록하였으며 체험소득은 약 3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 표 3-6 | 선감 어촌체험마을사업 운영성과

구분	방문객수(인)	체험시설 이용객(인)	체험소득(원)	간접소득(원)	비고
2005년	58,000	12,000	210,000,000	-	
2006년	61,100	17,000	266,000,000	-	
2007년	78,000	22,000	359,000,000	-	

자료 : 안산시청 내부자료

선감마을의 어촌체험마을사업은 체험마을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통하여 사업을 활성화시켰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체험마을의 운영초기에는 홍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갯벌체험 위주의 단일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성이 결여되어 방문객들의 관광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

표 3-7 | 선감 어촌체험마을의 컨설팅 운영결과

개선전 상태	갈등해소 활동	갈등해소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에 의존한 수동적 관광객 유치 • 체험프로그램 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개잡이 체험 외 활성화 프로그램이 없음 • 숙박시설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이 미비하여 단체 1박 이용이 불가 • 수익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프로그램만이 운영되고 있어 수익성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동적 홍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언론사 MBC, SBS, NeTV 등 4회 방송 • 체험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죽장, 어린이 놀이(에어바운스)설치 - 머드체험기계 설치 - 갯벌썰매체험 • 환경조성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승마장, 바비큐장, 텐트촌, 봉화전망대, 백사장건설 사업추진 • 숙박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집(게르)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동적인 홍보를 통하여 체험객의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체험 방문이 꾸준히 늘었으며 체험장 내 활성화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한 시도로 단일하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효과 • 체험장 내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수입증대 기대 • 몽골집(게르)설치로 단체 하계수련회 다수 유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체험마을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홍보대회의 참여를 통하여 선감 어촌체험마을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홍보책자도 발간하였다.

| 표 3-8 | 선감마을의 어촌체험마을 홍보대회 참가실적

박람회명	주최	참여배경 및 참여내용	참여 인원수	전시부스
농산어촌관광박람회 (서울무역전시관)	경기도	어촌관광마을 운영관련 정보수집	4	-
방과후 체험학습박람회 (코엑스)	농림부	선감마을을 홍보하고 도시인들에게 어촌마을을 알릴 수 있는 계기마련	5	리플렛1,000장 배포, 수산물 수족관전시



[그림 3-7] 선감마을의 어촌체험 홍보책자

그리고 지역 환경의 정비와 숙박시설의 마련을 통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만족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선감 어촌체험마을의 이러한 노력은 ‘우수어촌체험마을 선정대회’에서 우수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의 선감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성공전략을 바탕으로 선감마을이 우수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된 요인을 살펴보면 <표 3-9>와 같다.

| 표 3-9 | 선감 어촌체험마을의 성공요인 평가

구분	성공요인 분석
체험자원/시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로 각기 다른 체험관광상품의 운영 · 체험관광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의 마련
방문객 관리/ 서비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마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의 마련 · 선감마을의 운영을 위한 홍보대회의 참여
지역주민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컨설팅을 통한 체험마을사업의 성과진단 · 어촌체험마을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기능 강화

선감 어촌체험마을의 성공요인은 전문컨설팅을 통하여 사업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지역주민의 노력이다. 즉 체험마을사업 초기에는 사업이 다소 부진하였지만 컨설팅을 통하여 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지역주민의 단결된 노력이 선감 어촌체험마을을 우수 어촌체험마을로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촌체험마을사업은 어촌지역 내 타 지원사업과 달리 어업인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사업의 성공 혹은 실패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키우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어업인들은 어업활동과 체험마을사업을 병행하게 되므로 관광서비스에 대한 운영마인드가 부족한 경우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외부 컨설팅이나 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다.

3) 경기도 이천시 부래미마을

(1) 지역현황

경기도 이천시 동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부래미마을은 전체 35가구(농가 22가구, 비농가 13가구), 70명의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쌀과 배, 복

숭아, 포도, 고추 경작 등 농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부래미마을은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농산물의 유입 등 대외적 환경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연자원 여건 및 농산물 등을 상품화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부래미마을’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의지를 반영하여 2002년 ‘녹색농촌체험관광마을’ 선정, 2003년 ‘정보화마을’ 선정 등으로 마을을 지원하였다. 이후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체험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로 성장하게 되면서 2004년 농림부의 지역혁신 성공사례로 평가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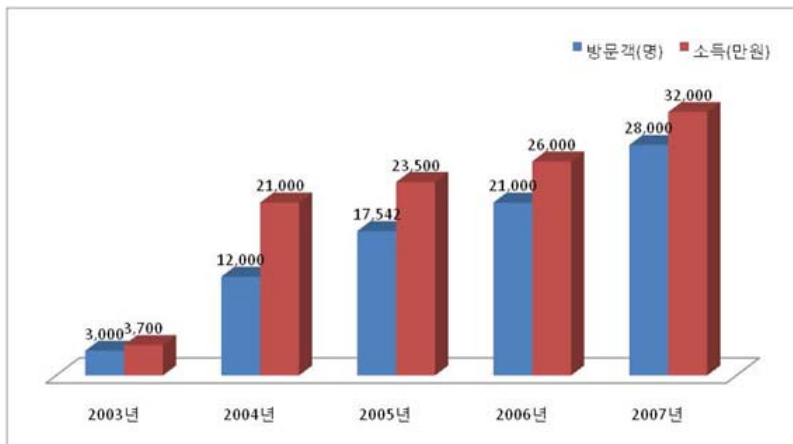
[그림 3-8] 부래미마을 전경

(2) 사업전개 및 운영성과

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소득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한 부래미마을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합리적 계획의 수립으로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성공시켰다. 또한 단순히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홍보를 위한 로고 작성, 자체적 홈페이지 구축, 마을간판 작성, 체험관광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장제도 도입 등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소득 다양화를 위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부녀회가 관리하는 공동식당을 운영하는 한편 경작한 농작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등 체험관광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소득의 다원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농촌관광 서비스 교육, 친환경 농산물 재배교육, 정보화 교육, 마을마케팅 교육, 월 1회 마을가꾸기 포럼 운영 등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하여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부래미마을의 농촌체험관광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2003년 3,000명의 방문객 규모에서 2007년 28,000명(10월 집계)이 방문하여 5년간 9배 이상의 방문객 증가를 보였다.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농촌의 소득도 함께 증가하여 2004년 3천 7백만 원 규모에서 2007년 3억 2천만 원으로 증가되었다.



[그림 3-9] 부래미마을 도시민 유치실적

(3) 부래미마을 농촌체험프로그램

부래미마을은 수도권 지역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절별, 체제기간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의 제작과 운영을 위해서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별도로 받고 있다.

[표 3-10] 부래미마을의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계절	농사체험	전통체험 프로그램					축제
		놀이, 풍습	먹거리 만들기	도자기	사물놀이	생태	
겨울	씨앗심기 모판만들기	연날리기 제기차기 설매 만들기 굴렁쇠 굴리기 웅기춧볼	우리콩두부 우리메밀묵 각종 떡	춧볼웅기 만들기 생활웅기	팽과리, 징, 북, 장구 배우기 풍물배우기	겨울잠자는 곤충찾기, 나무접붙이기	대보름
봄	모종심기 콩 심기 옥수수 고구마	붕어잡기 미꾸라기 잡기 우렁이잡기 밀청태 창포물 머리감기	우리콩두부 우리메밀묵 각종 떡 봄나물 캐기	춧볼웅기 만들기 생활웅기	팽과리, 징, 북, 장구 배우기 풍물배우기	식물조사작물 나무심기, 아빠와 함께 낚시를	배꽃 단오
여름	감자, 고구마 캐기 옥수수 따기	붕어잡기 미꾸라기잡기 곤충채집 공충생태조사	복분자 따기 복분자술담기	춧볼웅기 만들기 생활웅기	팽과리, 징, 북, 장구 배우기 풍물배우기	생태조사 아빠와 함께 낚시를	여름학교 추석놀이 웅기춧볼놀이 배 수확 (조생종)
가을	벼 베기 콩 수확	산뱀 줄기 도토리 줄기 우렁이잡기 메뚜기잡기	우리도토리묵 각종 떡 팔죽 쑂기	춧볼웅기 만들기 생활웅기	팽과리, 징, 북, 장구 배우기 풍물배우기	생태조사 아빠와 함께 낚시를	벼 수확 배 수확 (만생종)

부래미마을의 성공전략 또한 하전마을이나 선감마을과 같이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컨설팅을 통한 관광사업의 관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마련 등에 있다. 이와 더불어 부래미마을의 경우 지역 고유의 브랜드를 구성하여 이를 홍보전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2. 일본의 어촌지역 활성화 사례분석

1) 일본의 어촌지역 관광활성화 지원정책

(1) 일본의 농산어촌 교류활성화 시책

일본은 해양환경여건과 더불어 수산업 여건, 어촌정주 여건 등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촌사회의 노동력 감소, 노령화, 공동화현상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어촌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위한 주요 시책은 농림수산성의 농촌관광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농촌관광정책은 1992년 농림수산성에 ‘그린투어리즘 연구회’를 설치하면서 실시되었는데 그린투어리즘(어촌의 경우 블루투어리즘)의 추진을 위하여 1994년 6월 「농산어촌체제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활성화되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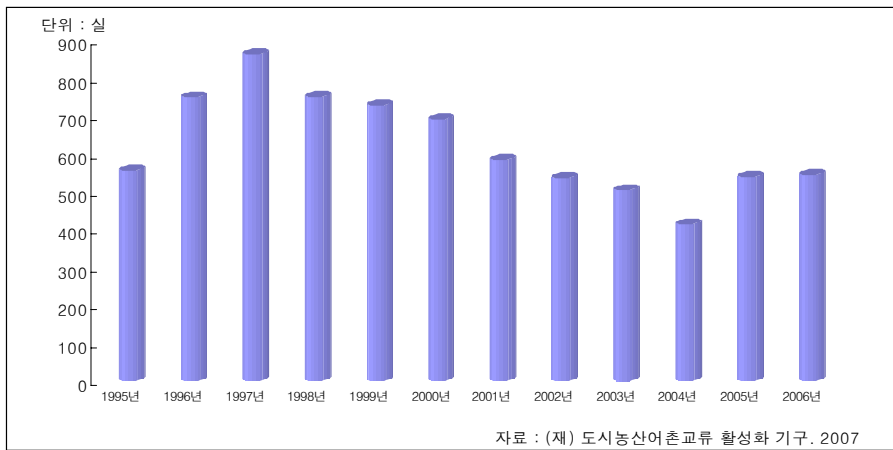
【표 3-11】 농산어촌체제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 촉진법률

구분	주요 내용
추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유있는 국민생활의 확보와 농산어촌지역의 진행을 위하여 농산어촌 체제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를 촉진 - 농림어업체험 민박업의 등록제도 실시
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정비와 시/읍/면별 추진계획의 수립 - 농림어업체험 민박사업의 실시 - 기반시설 정비에 필요한 시설자금의 지원
정비시설	체험시설, 교양문화시설, 집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민박사업 등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농수산물물의 적극적인 활용 - 농산어촌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요금 명시 -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 설명 등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그린투어리즘의 전개방향」, 2005.

9) ‘그린투어리즘이란’ 농어촌지역에서 자연, 문화, 사람들과 교류를 즐기는 체제형태의 여가 활동(일본 농림수산성)을 말한다.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였던 민박업 등록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박등록제도에 따라 등록된 민박가구의 추이는 1995년 556실이 등록된 이래 1997년 862실로 최대가 되었으며, 그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06년에는 545실이 등록되어 있다(<그림 3-10> 참조).



[그림 3-10] 등록 농림어업체협민박 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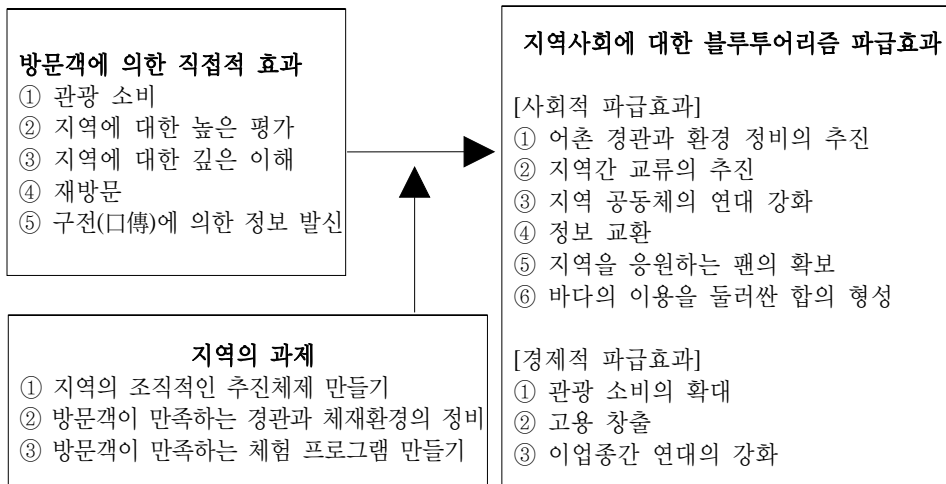
농산어촌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된 그린투어리즘의 도입 효과로는 민박사업을 통한 직접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지역특산품의 판로확대, 새로운 직업의 창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 컨셉에 부응하는 개발구상의 마련과 도시와 농어촌의 정보교류, 지역인재의 육성, 농어촌공간의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블루투어리즘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 추진

농림수산성의 그린투어리즘의 연장선상에 추진된 블루투어리즘은 어촌지역에서의 그린투어리즘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시된 개념이다. 한편 농산촌과 어촌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상호 다르기 때문에 일본 수산청에서는 별도로 블루투어리즘이라는 시책을 통하여 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추

진하게 되었다. 블루투어리즘의 추진 목적은 어촌에 체재하면서 어촌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어업활동의 체험을 통하여 어촌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그리고 어촌교류를 통한 최종목표는 어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블루투어리즘을 통하여 방문객이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로는 첫째, ‘숙박, 음식, 토산품 구입,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증대’ 둘째, ‘숙박시설에서의 서비스와 체험 프로그램에서의 만족에 의해 생기는 방문객의 평가와 감사의 말·찬사에 의한 주민의 지역 의식 고양’ 및 셋째, ‘방문객 자신의 재방문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역 홍보’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관광소비의 확대, 고용창출과 이업종간 연대 강화 등의 경제적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어촌 경관과 환경 정비의 추진, 지역간 교류의 추진, 지역 공동체의 연대 강화, 정보 교환, 지역을 응원하는 팬의 확보와 바다의 이용을 둘러싼 합의 형성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료: 일본 수산청, 「블루투어리즘(바다관광) 추진을 위한 안내서」, 1999

[그림 3-11] 블루투어리즘의 파급효과

(3) 일본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어촌교류촉진사업’

일본의 도시어촌교류촉진사업은 우리나라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노령화사회로 접한 어촌지역의 활력증대와 더불어 어가소득의 다양화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도시어촌의 교류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더불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어업인 교육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어촌교류촉진사업의 주된 사업내용으로는 어촌노년층(senior)을 위한 교류 활동 조사사업(2007년 신규사업), 도시어촌교류대책사업(계속사업), 어린이들의 체험활동 조사사업(계속사업) 등이다.

본 사업 중 어촌체험 관광관련 분야는 도시어촌 교류대책사업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도시어촌 교류촉진지구의 지정, 도시어촌 교류협의회 및 도시어촌 교류 심포지엄 개최, 지역전문가(어드바이저) 파견 등이 있다. 일본의 도시어촌 교류촉진사업은 기반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사업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3-12】 도시어촌교류촉진사업의 역할

구분	주요내용
도시어촌교류촉진 사업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 지역에서의 경제 파급 - 어촌인구의 규모/구성의 개선 - 어촌의 교류활성화 - 어촌의 고령자, 여성의 취업기회 창출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어촌의 재평가 - 도시 주민의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의 조성 - 어촌 주민·어업자의 도시 (소비) 요구 이해의 촉진 - 어장·자원 이용 조정과 자원 관리의 촉진 - 어촌과 도시의 협동 활동의 가능성 - 어촌의 전통 행사·문화·경관의 보전 촉진 - 어촌 생활환경의 정비 촉진 .
주요활동사례	수학여행체험단 활동, 도서생태관광, 바다낚시체험, 환경보전활동
추진기구	도시 어촌 교류 추진 협의회

자료 : 일본 수산청, 「도시 어촌 교류를 위한 지침」, 2005.

2) 일본의 어촌지역 관광활성화 사례

(1) 일본 니이가타현의 도시어촌교류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

① 지역개요

노마치(能生町)는 니이가타현(新潟縣)의 니시바타(西端)부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마을로 다양한 수산물과 더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2000년 노마치의 전체 인구는 3,255세대에 10,858명으로 과거 20년간 노마치정 전체인구의 20%가 감소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노년층 인구의 비율은 29.3%로 일본 전체(17.4%)나 니이가타현 전체(21.3%)보다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노마치는 농업과 수산업의 1차산업이 크게 발달한 지역이며 특히 주변 지역에 비하여 수산업이 강한 편이다. 노마치에는 노마치어협과 다케시어협의 2개 어업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다. 주된 어업활동으로는 소형저인망, 선망어업 등 어선어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노마치의 어업생산량은 연간 1,788톤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어획고를 보유하고 있다.

②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노마치의 어업생산은 타 어촌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이며 수익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어업활동 인구의 고령화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의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수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향후에도 어업활동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즉 현재의 어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어촌사회를 꾸려나갈 어촌후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노마치 어협 청년부에서는 지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산물과 접하고 어촌사회와 교류시키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발전되어 오늘날의 어촌체험프로그램으로 발전되었다.

【표 3-13】 니이가타현의 도시어촌교류사업

테마 (Thema)	행정구역	시읍면	실시지구	실시 주체 등
소년소녀 어업체험교실	니이가타현 (新潟縣)	이토이가와시 (糸魚川)	노마치 (能生町)	노마치(能生町) 어업 협동조합 청년부

사업 초기에는 어선승선에 따르는 안전성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어 지역학교의 참여가 다소 어려웠지만 어협 청년부가 주변 지역의 학교관계자와 협의를 거치고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나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지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년·소녀 어업체험교실」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다가 좋아」라는 테마를 통하여 바다를 가까이 접하고 소중하게 느끼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세부적인 어촌체험프로그램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4| 니이가타현 노마치정의 어촌체험프로그램

시간	A 그룹(group)	B 그룹(group)
8:30	집합 개회식	
9:00	승선 출항 어선어업체험(체험 승선)	활어 수조 개방(활어잡기 체험) 어구 사용법(ropework)
10:30	입항 어린 시장에 이동	종료
10:40	활어 수조 개방(활어잡기 체험) 어구 사용법(ropework)	승선 출항 어선어업체험(체험 승선)
12:10	종료	입항 어린 시장에 이동
12:20	중식(지역특산물과 수산물(오징어))	
13:30	비디오 (video) 학습(어선 어업의 구조, 어구(그물)사용	
14:30	폐회식	
14:50	해산 귀가	

(2) 일본 도야마현의 도시어촌교류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

① 지역 개요

도야마현 쿠로베시 이시다 피샤리나지구는 도야마만에 위치한 제 1종 어항으로 수산세력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지역 내에는 2개의 어업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다. 이시다 피샤리나는 1992년 전국에서 최초로 어항이용 조정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쿠로베 어협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본 지구는 어항정비에 따라 플레저보트를 위한 계류시설과 더불어 낚시클럽 하우스, 연수시설, 대형 생태수조 및 전시 공간, 관리시설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1994년 낚시잔교가 추가로 조성되었다.

②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이시다 피샤리나에서의 도시어촌교류사업(도시어촌 교류 이벤트)은 우선 여름철 피샤리나지구에서 개최되는 ‘수제 골판지 배 레이스’가 있다. 이 이벤트는 총 상금 100만 엔에 20척 내외의 선박이 참여하는 것으로서, 지역 어업인과 피샤리나 클럽(레저이용객)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개최되던 것이 확대되어 일반인도 참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벤트와 함께, ‘바다기

념일', '바다낚시 대회', '지역소식지 발간' 등의 행사들도 함께 개최하여 지역소식을 도시민과 어업인들이 상호 교류하도록 하였다.

【표 3-15】 도야마현의 도시어촌교류사업

테마(Thema)	행정구역	시읍면	실시지구	실시 주체 등
피샤리나 시설 정비를 통한 교류 활동의 전개	도야마(富山)현	쿠로베(黒部)시	이시다(石田) 피샤리나	쿠로베(黒部) 어업 협동조합, 이시다(石田) 피샤리나쿠라부

한편 본 교류사업의 핵심은 지역 어업인과 피샤리나 클럽(방문객) 간의 「해상이용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즉 지역주민인 어업인과 레저 이용객간에 발생했던 상충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용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정의 주된 내용은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존중, 유어(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설정, 유어 시간의 한정, 유어 방법의 한정 등이며 이 협정에 따라 어업인들은 레저활동객과의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게 되었으며 방문객들은 지역을 보다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주민과 방문객간의 유대관계가 개선되면서 어업인들은 조업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으며 방문객들의 쓰레기 투기가 사라지면서 환경오염의 문제도 저감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그림 3-12〕 도야마현의 도시어촌교류사업 현황 사진

또한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어업체험과 더불어 농업체험, 농촌민박 등도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게 되었다. 본 사업을 통한 지역 내 역할 분담은 크게 공공기관인 쿠로베시와 어협, 피샤리나클럽의 각 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쿠로베시는 어업체험(블루투어리즘)을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를 담당한다. 그리고 지역 어협에서는 어업체험활동의 운영과 더불어 관리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피샤리나클럽은 지역 체험활동(해양스포츠 활동)의 진흥을 위한 조연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3) 일본 어촌지역 지원사업의 시사점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에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어촌교류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한 주요 시사점으로는 우선 기반시설조성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각종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평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컨설팅 및 지역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어업인 스스로 어촌지역의 활력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도시민이 어촌에 찾아오도록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서 벗어나 어촌사회를 이해하고 상호 교류하는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촌지역에 대한 관광관련 지원 사업들은 하드웨어나 기반시설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다양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정부의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에서 탈피하여 어업인이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일회성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성공지역에 대해서는 재투자 등의 추가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체험마을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의 도입은 시설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객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시장수요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으로 체험마을의 운영방향이나 추진

실적, 문제점 등을 주기적 점검하여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어촌지역의 관광사업을 주기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관광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성공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촌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은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도시와 어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표 3-16】 국내·외 사례 시사점 분석

구분	시사점
고창군 하전 어촌체험마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의 구사를 통한 관광수요의 창출 · 마을어업자원과 체험자원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어장휴식년제와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 · 체험고객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고객관리프로그램 운영
안산시 선감 어촌체험마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체험조직의 운영과 역할분담, 마을주민의 참여 활성화 · 컨설팅을 통하여 지역의 갈등요소 해소 및 운영효율화 도모
이천시 부래미 농촌체험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체험관광마을 운영 · 지속적인 교육 참여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운영과 관리
일본의 도시어촌 교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어촌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 지원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 어업인 교육 등 소프트웨어부문의 지원방안의 마련 · 도시어촌교류협의회, 지역전문가(어드바이저) 파견

제 4 장 어촌관광과 어촌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

어촌관광은 어업인이 소규모로 실시하는 관광형태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행정구역상 ‘리’ 단위의 마을에 머무는 반면, 통계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는 대개 시·도 수준 혹은 시·군 단위로 발표되기 때문에 어촌관광의 효과를 국가 통계로는 파악할 수 없다. 설사 통계가 생성된다 하더라도 해당기간동안 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변화가 어촌관광에 의한 것인지, 혹은 다른 요소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촌관광 외에도 어촌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그 요소들의 영향을 배제시킨 채 오직 어촌관광에 의한 효과만을 뽑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어촌관광이 어촌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어촌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어촌관광의 효과는 당사자인 어업인들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리커트 척도를 통해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의 활성화 정도를 계량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활성화 정도를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교류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어촌활성화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어촌리더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설문의 목적을 간단히 정리하면 어촌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어촌관광이 어촌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때 어촌활성화는 앞서 정의한 대로 경제적 활성화, 사회적 활성화, 문화적 활성화, 교류의 활성화로 구분된다.

1. 일반적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설문은 현대인재개발원과 지역재단에서 실시하는 어촌지역개발 리더 육성프로그램에 참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교육과정의 대상은 현재 어촌의 발전을 주도하는 리더 혹은 향후 리더가 되길 희망하는 사람으로, 참가자들은 어촌활성화에 대한 책임 혹은 관심을 가지고 어촌개발 사업을 진행하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어업인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본 설문 목적에 잘 부합되는 대상자라 할 수 있다. 한편,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 표 4-1 | 설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구 분		응답자(명)	비 중(%)
성별	남 자	83	79.0
	여 자	8	7.6
	미가입	14	13.3
	합 계	105	100.0
연령	30대	12	11.4
	40대	18	17.1
	50대	39	37.1
	60대	18	17.1
	미가입	18	17.1
	합 계	105	100.0
거주지	강 원	17	16.2
	충 남	3	2.9
	전 북	8	7.6
	전 남	23	21.9
	경 북	11	10.5
	경 남	23	21.9
	부 산	1	1.0
	제 주	14	13.3
	미가입	5	4.8
	합 계	100	100.0
직책	어촌계장	45	42.9
	이 장	5	4.8
	간 사	5	4.8
	수협간부	6	5.7
	어촌계원	5	4.8
	기 타	8	7.6
	미가입	31	29.5
	합 계	105	100.0

설문 응답자 중 79.0%가 남성인데, 이는 어촌의 발전을 주도하는 어촌 계장, 이장 등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50대가 37.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와 50대가 17.1%, 30대가 11.4%를 차지하였다. 어가인구의 연령분포¹⁰⁾와 비교해보더라도 50대의 비중은 높은 편인

10) 통계청의 어업조사에 의하면, 2007년 어가인구의 연령 분포는 30대가 7.6%, 40대가

데, 이는 어촌사회에서 지역리더로 경륜이 있는 50대가 가장 신망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거주지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남과 전남이 각각 21.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원이 16.2%, 제주가 13.3%, 경북이 10.5%, 전북이 7.6%, 충남이 2.9%, 부산이 1.0% 순으로 나타났다. 어가인구의 지역별 분포¹¹⁾와 비교해 보면, 충남, 인천, 경기, 울산지역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중 어업인구가 많은 충남지역의 응답자가 충분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수도권과 울산의 경우 어업인구가 적어 리더육성 프로그램의 참석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책을 묻는 질문에 유효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어촌계장이라고 대답하여, 대부분의 어촌에서 어업종사자들의 대표인 어촌계장이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리더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어촌 및 어촌관광에 대한 일반사항

본격적인 설문에 앞서, 본 설문의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어촌 및 어촌관광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2>는 응답자의 마을 내 어업인구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어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6~50% 이하인 경우가 4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6~100% 이하가 23.8%, 51~75% 이하가 21.9%, 25% 이하인 경우가 8.6%로 나타났다.

한편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어촌계의 어업인구 비중은 8%이며, 지역별로는 충청과 전남의 어촌계는 어업인구 비중이 각각 28%와 20%로 높게 나타났다고, 부산과 경기·인천의 어촌계는 어업인구 비중이 각각 1%와 2% 수준에 불과했다. 어촌계의 어업인구 비중과 응답자가 거주하는 마을의 어업인

16.2%, 50대가 22.3%, 60대가 20.0%이다.

11) 통계청의 어업조사에 의하면, 2007년 어가인구의 지역별 분포는 전남이 30.7%, 경남이 16.0%, 충남이 13.4%, 제주가 9.5%, 경북이 6.9%, 강원이 6.1%, 전북이 5.1%, 부산이 4.5%, 인천이 3.9%, 경기도가 2.2%, 울산이 1.7%이다.

구 비중을 비교해보면, 본 설문의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어촌 중에서도 어업인구 비중은 높은 지역의 리더인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2 | 마을 내 어업인구 비중

구 분	응답자(명)	비 중(%)
25% 이하	9	8.6
26%~50% 이하	46	43.8
51%~75% 이하	23	21.9
76%~100% 이하	25	23.8
미가입	2	1.9
합 계	105	100.0

응답자 중 대도시에서 1시간 이내인 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은 24.8%, 1시간에서 2시간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35.2%, 2시간에서 3시간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22.9%이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3시간 이상 떨어진 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하다. 현재 어촌관광은 주로 당일여행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일여행을 하려면 이동시간이 최소 3시간 이내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본 설문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접근성은 어촌관광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표 4-3> 참조).

| 표 4-3 |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시간

구 분	응답자(명)	비 중(%)
1시간 이내	26	24.8
1시간에서 2시간 이내	37	35.2
2시간에서 3시간 이내	24	22.9
3시간 초과	9	8.6
미 기 입	9	8.6
합 계	105	100.0

한편 거주지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사업을 모색하거나 추진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4.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사업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촌관광사업이 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산증대사업이 27%, 주민 화합 및 교육사업이 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어촌리더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촌관광사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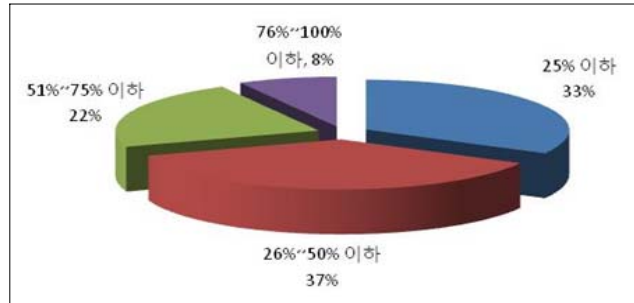
어촌활성화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촌관광사업으로 체험어장, 수산물센터, 숙박시설을 포함한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 해수풀장·낚시터 등 관광시설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체험어장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하였다. 그리고 생산증대사업으로는 자율관리어업, 바다목장화사업, 양식어장 개발, 어항 정비 등을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자율관리어업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하였다.

표 4-4 | 어촌활성화를 위해 모색(혹은 추진)한 사업

사업 추진 및 모색 여부			<사업 유형>
구분	응답자(명)	비 중(%)	
있 다	78	74.3	
없 다	21	20.0	
미가입	6	5.7	
합 계	1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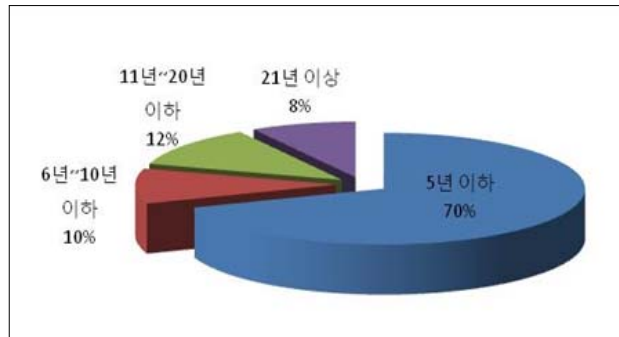
<그림 4-1>은 어촌관광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의 어촌관광사업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주민 중 26~50% 이하가 어촌관광에 참여하는 지역이 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5%이하의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은 33%, 51~75%이하의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은 22%로 나타났다.

그리고 76~100% 이하의 주민이 어촌관광에 참여하는 지역은 8%에 불과하였다. 즉 어촌관광사업을 실시하더라도 마을주민의 과반수가 함께 사업에 동참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은 거주민의 절반 이하만이 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마을주민의 어촌관광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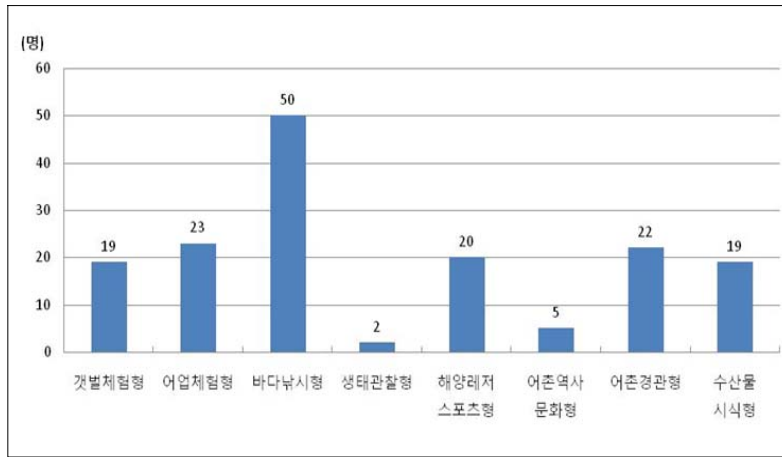
<그림 4-2>는 어촌관광사업을 실시해 온 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어촌관광사업을 시작한지 5년 이하인 지역이 7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6년~10년 이하인 지역이 10%, 11년~20년 이하인 지역이 12%, 21년 이상인 지역이 8%로 나타났다. 즉 최근에 어촌관광을 실시한 지역이 대부분인데, 이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어촌관광이 소수마을에서 한정적으로 실시되다가 2001년 어촌체험마을사업이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4-2] 어촌관광의 실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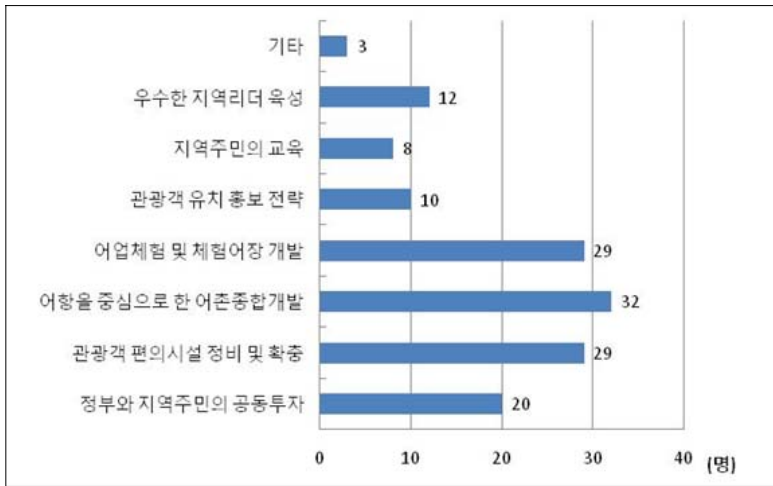
한편 어촌관광의 유형을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다. 가장 많이 실시되는 유형은 바다낚시유형으로 105명의 어업인 중 50명이 선택하였다. 이어서 어업체험형이 23명, 어촌경관형이 22명, 해양레저스포츠형이 20명, 수산물시식형과 갯벌체험형이 29명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촌역사문화형과 생태관찰형은 각각 5명과 2명으로 소수에 불과했다.

즉 낚시어선, 유어장의 유료낚시터를 비롯한 바다낚시사업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해수욕이나 스킨스쿠버와 같은 해양레저스포츠형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도 많은 편이었다. 한편 최근 가장 즐기는 갯벌체험형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 인천, 충남 지역의 응답자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4-3] 어촌관광 유형

<그림 4-4>는 어촌관광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정리한 그림이다. 어촌지역 리더들 중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업체험 및 체험어장 개발과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이 각각 29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어촌지역 리더는 어촌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림 4-4]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건

설문 대상자인 어촌지역 리더가 거주하는 어촌의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어업비중은 우리나라 어촌의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는 어촌관광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오히려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70% 이상의 어촌지역 리더가 어촌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 약 60%가 어촌관광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어촌관광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참여율은 대부분이 50% 이하이나 어촌의 어업인구 비중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높은 편이어서 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어촌관광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촌관광 유형은 바다낚시형, 어촌경관형, 어업체험형, 갯벌체험형, 수산물시식형이 많고, 생태관찰형과 어촌역사문화형을 실시한다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어촌지역 리더들은 어촌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어촌활성화 기여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활성화 정도를 경제적 활성화, 사회적 활성화, 문화적 활성화, 교류 활성화라는 4가지 측면에 관한 1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활성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먼저 각 문항이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coefficient α)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데, 흔히 0.8~0.9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6~0.7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0.6보다 작으면 내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이학식·임지훈, 2005, p. 123).

<표 4-5>는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14문항에 대한 신뢰도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4문항을 모두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0.92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을 제거하더라도 알파 계수는 개선되지 않았다. 즉 현재 항목으로 어촌관광이 어촌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5 | 신뢰도 분석

구 분		항목 제거 시 α 값	전체 α 값
경제적 활성화 측면	직접적 경제효과	0.921	0.924
	수산물 판매 증가	0.917	
	서비스 사업체 증가	0.921	
사회적 활성화 측면	생활기반시설 개선	0.924	
	청장년층 증가	0.92	
	삶의 질 향상	0.914	
	경관 개선	0.922	
문화적 활성화 측면	문화시설 이용	0.919	
	문화활동 증가	0.918	
	고유 문화 계승 발전	0.926	
	애향심 증가	0.915	
교류의 활성화 측면	도시민과의 교류 도움	0.914	
	외부 방문객 증가	0.916	
	정보 및 기술 습득	0.915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 활성화 정도를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교류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6>~<표 4-9>와 같다. 이때 ‘3’은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 활성화 정도가 보통 수준임을 의미하며, ‘5’에 가까울수록 어촌 활성화 정도가 크고, ‘1’에 가까울수록 어촌 활성화 정도가 낮다. 즉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활성화 정도가 ‘3’을 초과하면 어촌관광에 의해 실제 어촌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어촌관광의 어촌활성화 정도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 4-6>과 같다. 어촌관광을 진행하면서 얻는 직접적인 소득에 대한 의견은 2.77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어촌관광의 직접소득은 관광객이 지불하는 프로그램 참가비, 식사 및 숙박비를 의미하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적고 식사 혹은 숙박을 마을 밖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보인다. 어업인들이 어촌관광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업외소득을 통한 소득증대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유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촌 현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를 개발하여 식사를 유도하고, 햇불 낚시, 일출·일몰 감상, 별뿔별 보기 등 밤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숙박을 유도하여야 어촌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촌관광을 실시하면 마을에 방문하는 외지인이 늘게 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수산물 판매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과 어업인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어촌관광에 의한 수산물 판매 증가 정도는 '3.19'로 나타나, 어촌관광지에서 수산물판매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의 증가 정도는 '2.93'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즉 신산업 창출 및 고용확대의 효과 있는 농촌축제(유승우·박정철, 2004)와 달리, 어촌관광의 경우 어촌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자면,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의 경제적 활성화 정도를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어촌관광을 실시하는 얻는 어업외소득이 낮게 나타나, 유료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표 4-6 |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의 경제적 활성화 정도

구 분	평 균
어촌관광 직접소득 증가	2.77
수산물 판매 증가	3.19
관광객 대상 사업체 증가	2.93

사회적 측면에서 어촌관광의 어촌활성화 정도를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어촌관광에 의해 사회적 활성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크게 개선되는 점은 경관이 좋아진 점(3.47)이고, 다음으로 생활기반시설이 개선(3.24)된 것이다. 한편 어촌관광의 어업인

들의 삶의 질 향상(3.05) 정도는 보통 수준이고, 청장년층 인구 증가(2.91)는 보통 이하로 조사되었다. 현재 어촌관광은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편히 지낼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어메니티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촌관광을 통해 인구 증가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해 어촌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표 4-7 |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의 사회적 활성화 정도

구 분	평 균
생활기반시설 개선	3.24
청장년층 인구 증가	2.91
삶의 질 향상	3.05
경관 개선	3.47

<표 4-8>은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의 문화적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어촌관광은 거주지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3.47)시키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촌 고유문화의 계승 및 발전 정도가(3.30)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업인들이 어촌에 조성한 공원 등의 문화시설을 이용(3.06)하거나 축제 등의 문화활동에 참여(3.02)하는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 표 4-8 |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의 문화적 활성화 정도

구 분	평 균
공원 등 문화시설 이용	3.06
축제 등 문화활동 증가	3.02
고유 문화 계승 및 발전	3.30
애향심 고취	3.47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촌관광은 어촌의 고유문화를 새롭게 자각하고 거주지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는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구성원을 하나로 통합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거나 관련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하므로, 이러한 문화적 활성화는 향후 지역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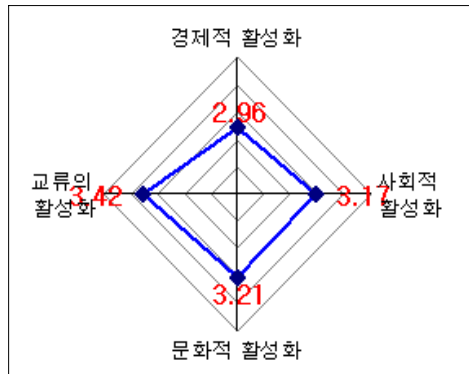
한편 어촌관광을 통해 문화시설 및 문화활동을 어업인들이 활용하는 정도는 크지 않았으며, 이는 조성된 문화시설이나 개발된 문화활동은 많지 않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문화는 하나의 생명처럼 성장하지 않으면 쇠퇴하여 결국 소멸된다. 그러므로 도시민들과 함께, 혹은 어업인 스스로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간다면 지역 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 4-9>는 어촌관광에 의한 도시·어촌 간 교류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어촌관광은 지역의 인지도 향상(3.55)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다음으로 외부의 정보 및 기술 습득(3.47)과 도시민과의 교류 증가(3.24)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관광의 태생적 목적이 도시민의 어촌사회에 대한 이해 및 상호간의 이해를 돕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촌관광이 갯벌체험, 바다낚시, 해양레포츠 등 해양을 소재로 한 활동은 많은데, 어촌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표 4-9 |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의 교류 활성화 정도

구 분	평 균
도시민의 생활양식 이해 및 교류 증대	3.24
지역 인지도 향상	3.55
정보 및 기술 습득	3.47

지금까지 살펴본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활성화 정도를 4가지 측면에 대해 평균을 구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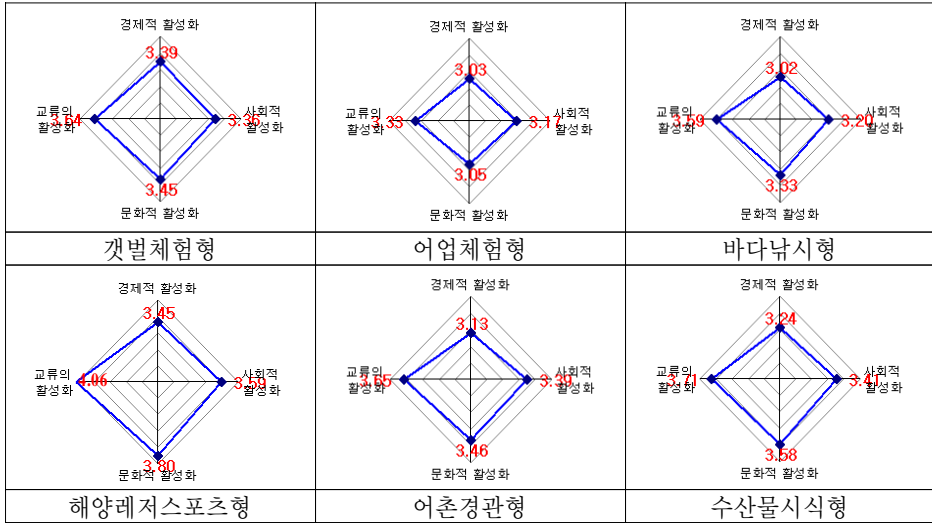


[그림 4-5]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활성화 정도

본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5’에 가까울수록 활성화 정도가 크고, ‘1’에 가까울수록 활성화 정도가 작다. 각 측면별로 살펴보면,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의 사회적 활성화, 문화적 활성화, 교류의 활성화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활성화는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즉 어촌관광은 어촌의 문화·사회적 발전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어촌과 도시의 생활양식을 상호 이해하고, 어촌에서 외부의 선진 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고, 어촌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업인들이 어촌관광사업을 통해 기대했던 소득증대 효과는 만족스런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재는 어촌관광사업은 어촌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하여 유료 프로그램 개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판매 방안 마련, 어촌관광지에서의 식사 및 숙박 유도 등의 노력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활성화 정도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림 4-6>과 같다. 어촌관광의 유형은 갯벌체험형, 어업체험형, 바다낚시형, 생태관찰형, 해양레저스포츠형, 어촌역사문화형, 어촌경관형, 수산물 시식형 등 8가지이다. 이중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가 적은 생태관찰형과 어촌역사문화형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어촌 활성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 해양레저스포츠형의

어촌활성화 정도가 가장 좋고 어업체험형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어촌관광 유형별 어촌활성화 정도

<그림 4-7>은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촌관광의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이를 살펴보면 어촌지역 리더는 다양한 소득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촌관광을 이끌어갈 리더의 존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관광기반시설의 조성 순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활성화 정도에서도 경제적 활성화가 가장 부족하다고 나타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림 4-7] 어촌활성화를 위한 어촌관광의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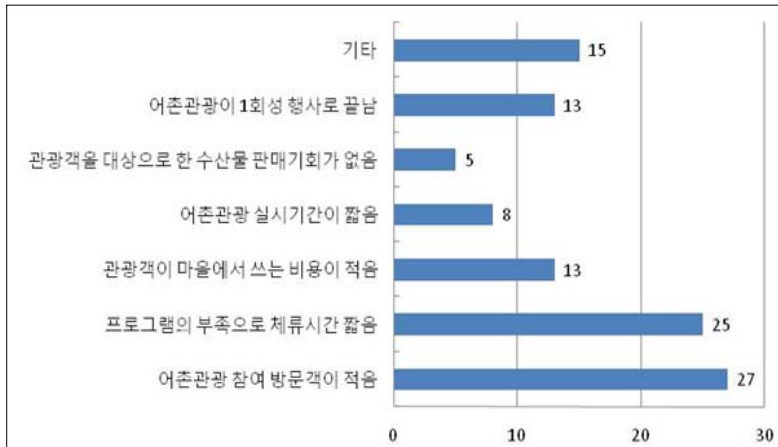
현재 어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위협요소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이다. 따라서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청장년층을 유입시키는 것인데, 어촌지역 리더들은 어촌관광을 통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여기고 있었다. 반면 어업권의 개방은 꺼리고 있다.



[그림 4-8] 청장년층 유입을 위한 필요 요소

한편 어촌관광이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방문객이 적고 체류시간이 짧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관광객이 식사 혹은 숙박 등을 위해 마을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적고, 1회성 행사로 그쳐 지속적인 수산물 판매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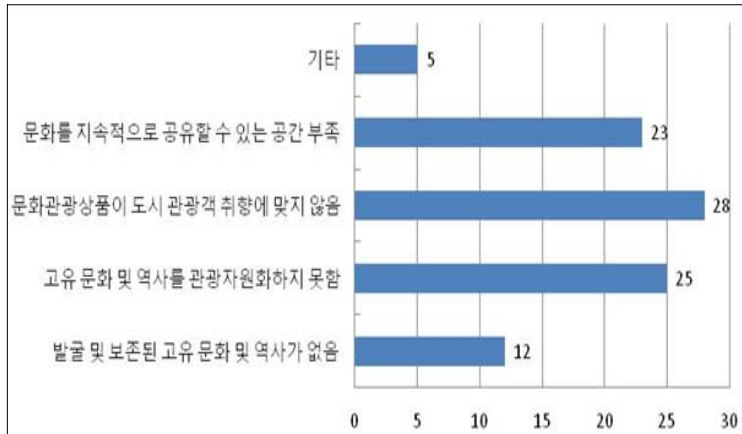
[그림 4-9] 어촌관광이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

이는 어촌관광 실시시간이 짧아 많은 수의 어촌관광지가 아직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촌관광을 통해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어촌관광 자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방문객 및 재방문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0>은 어촌관광이 어촌문화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를 살펴보면, 어촌관광사업에서 실시하는 문화관광상품이 도시민의 취향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 고유문화 및 역사를 관광자원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 문화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고르게 나타났다.

문화는 특성상 여러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누려야 발전하므로, 어촌

관광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촌에 존재하는 문화·역사자원을 도시민의 취향에 맞게 관광자원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4-10] 어촌관광이 어촌문화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

<그림 4-11>은 어촌관광을 통해 도시·어촌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한 결과이다. 어촌지역 리더들은 도시·어촌 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어업 및 어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어서 자매결연이나 정보 네트워크 등의 어촌과 도시간의 교류의 장을 개설하고, 어촌관광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4-11] 도시·어촌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어촌관광 요구사항

3. 종합검토

어촌관광은 대개 ‘리’단위 어촌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시·도 혹은 시·군 단위로 집계되는 국가통계로는 어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어, 설문조사를 통해 어촌관광이 어촌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현대인재개발원과 지역재단에서 실시하는 어촌지역개발 리더 육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대부분은 어촌의 발전에 책임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어촌계장, 이장, 수협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거주지는 어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대부분 거주지인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모색하거나 추진하였는데, 그중에서 어촌관광이 가장 많았다. 한편 현재 어촌관광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지역주민의 어촌관광 참여율이 어업인구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 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어촌관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촌관광의 실시기간은 70%가 5년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촌관광이 2001년에 시작된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의해서 일부 지

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판단된다. 어촌관광의 유형은 바다낚시형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업체험형, 어촌경관형, 해양레저스포츠형, 갯벌체험형, 수산물 시식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태관찰형과 어촌역사문화형은 소수에 불과했다. 갯벌체험형은 갯벌이 풍부한 서해안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촌관광 유형인데, 본 설문에서는 충남, 경기, 인천 지역의 응답자가 많지 않아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촌관광에 의한 어촌활성화 정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교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제적 활성화를 제외하면 모두 활성화 정도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활성화는 어촌관광을 통해 얻는 직접소득의 증가 정도가 특히 낮게 나타나 유료 체험프로그램, 특히 숙박 유도를 위한 야간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관광지에서의 식사 유도를 위한 요리 개발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활성화 정도는 생활기반시설 및 경관 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적 활성화 정도는 애향심 고취와 어촌 고유문화 계승 및 발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류 활성화 정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지역 인지도 향상과 정보 및 기술 습득의 정도가 높았다. 유형별로는 해양레저스포츠형, 수산물 시식형, 갯벌체험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활성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어업체험형의 활성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어촌관광을 통해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해야 점을 묻는 질문에 어촌지역 리더들의 상당수가 다양한 소득화 방안의 강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4가지 측면 중 경제적 활성화 정도만이 ‘보통’수준 이하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로, 어촌관광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는 아직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어촌관광이 어촌의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광객이 많지 않고, 체험프

로그래미 부족하여 체류시간이 짧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어촌관광 실시기간이 5년 이하인 지역이 많아 아직 사업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향후 다양한 어촌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어촌관광지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촌주민의 결속력을 높이는 기능이 있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촌의 문화·역사자원을 관광자원화하되 도시민의 취향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꾸준히 누려야 발전되는 문화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어촌의 고유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어촌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어촌관광의 기능은 현재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업 및 어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매결연이나 정보 네트워크 등의 어촌과 도시간의 교류의 장을 개설하며, 어촌관광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한편 어촌관광에 의한 청장년층의 인구 증가 정도는 ‘보통’ 이하로 나타났으나, 어촌지역 리더들은 청장년층의 유입을 위해서는 어촌관광을 활성화하여 청장년층에서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현재 어촌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어촌지역 리더들은 어촌관광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현재 어촌관광을 통해 어촌의 사회적, 문화적, 교류의 활성화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활성화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촌관광지에서 숙박 및 식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장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방안

1. 어촌관광의 역할

1) 어촌의 개방

(1) 필요성

국가나 지역의 개방은 문화의 교류, 인적자원의 교류와 함께 공간을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국가 간의 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개방에 따른 편익은 계량적인 것과 비계량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즉, 개방을 통한 교류 내지 교역의 촉진은 소득과 고용의 창출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문화발전에도 기여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대표적 개방 형태로서, 국가간교역의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한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은 일방적인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참여 국가들이 개방을 통하여 상생이 가능할 때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개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참여국들의 편익이 양(+)의 값을 가질 때 국가 간의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의 개방 또한 국가의 개방과 다를 바 없다. 상생할 수 있는 자원이나 공간이 있는 지역은 상호 개방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특히 변화가 필요한 어촌지역의 개방을 더욱 시급하다.

정부는 어촌에 다양한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사업의 효과는 인적자원의 자질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리고 우수한 인적 자원은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잠재적 가치를 실현시키기도 한다.

어촌의 개방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U턴,¹²⁾ J턴,¹³⁾ I턴¹⁴⁾을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2) 어촌관광의 역할

어촌을 방문하여 지역의 문화와 경관 등을 경험하는 어촌관광은 어촌의 개방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관광은 사람, 자연, 시설과의 만남으로 구성된다. 특히 어촌관광에서 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즐거움은 배가된다. 따라서 어촌관광은 어촌주민이 외지인인 관광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촌 관광객은 다양한 관광욕구를 가지는데, 이는 어촌과 바다의 자원을 활용한 상품에 대한 욕구로 나타난다. 어촌주민과 관광객간의 교류는 다양한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보의 장을 형성할 수 있다. 어촌관광은 수산자원은 물론이고 어촌과 바다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어촌주민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어촌주민은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거나 전문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어촌관광은 주민에 대한 이러한 교육의 계기가 됨으로써 어촌의 인적자원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어촌관광은 수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어업소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어업 외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어촌의 변화는 도시에 거주하는 청·장년과 어촌자원을 활용할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촌으로의 귀향을 촉진시킬 수 있다.

12) U턴은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어촌을 떠났던 사람이 원래의 고향인 어촌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U턴이라 할 수 있다.

13) J턴은 출신지까지는 돌아가지는 않지만 출신지 가까이 돌아가는 현상을 말함. 예를 들면 어촌을 떠났던 사람이 고향 어촌이 아닌 다른 어촌으로 돌아가는 것은 J턴이라 할 수 있다.

14) I턴이란 도시에서 어촌으로 가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비자 지향적 사고

(1) 필요성

상품의 수명주기(life cycle)는 점점 짧아지고, 상품의 소비시장은 세분화되고 있다. 상품 수명주기의 단축은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경쟁상품의 출시와 소비자(consumer)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기호의 변화에 기인한다. 그리고 소비시장의 세분화는 소비자 계층의 기호가 다양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생산자(producer)는 소비자 행위(consumer behavior)의 조사·분석을 토대로 상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로서 상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제품 개발 및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프로슈머(prosumer)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와 같이 생산자는 상품의 수요자인 소비자 지향적인 사고를 토대로 상품을 생산하여야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생산자가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상품을 시장에 출하할 때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생산자는 소비자가 상품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상품을 홍보한다. 이와 같은 홍보는 자신의 상품시장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어촌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관광객은 어촌주민이 생산하는 상품의 잠재적 소비자이다. 그러나 어촌주민의 대부분은 어촌을 방문하는 외지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관광객은 어촌에서 유형 또는 무형 상품을 소비할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주민의 대부분은 관광객을 그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소비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촌주민이 소비자 지향적 사고를 가지게 되면 어촌의 부가가치 증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어촌관광의 역할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웰빙(well-being) 욕구도 증가한다. 오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웰빙이 진정한 웰빙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 그러나 도시의 생활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많은 도시주민은 짧은 시간이지만 상대적으로 웰빙 조건을 갖춘 어촌을 방문하곤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촌관광시장의 수요자이다.

어촌관광은 어촌이 생산하는 유형 또는 무형상품의 범위를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대상을 확장시킨다. 상품을 생산하는 어촌주민이 수산물 시장은 물론이고 또 다른 시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어촌주민들은 관광객들이 원하는 상품 생산의 원자재를 이용하여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촌주민이 관광시장에 공급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주로 수산물을 시장에 공급하는 어촌주민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산물 생산자로서 역할도 미진하다. 따라서 수산물 이외의 서비스가 필요한 관광시장에서 관광상품의 생산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시작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의 결과로 어촌관광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촌계가 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의 투자액은 기존의 어업과 어항에 투자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투자 회수기간도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효과적으로 어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어촌체험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주민들은 어촌을 찾는 관광객에게 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로서 역할

을 하고 있다. 어촌주민은 어촌을 찾는 외지인을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어촌관광시장의 소비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어촌관광은 어촌주민으로 하여금 관광객이 요구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소비자 지향적 마인드를 형성함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다.

3) 인적자원의 연계 및 육성

(1) 필요성

어촌은 바다와 육지를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어촌은 육지의 자원과 바다의 자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어촌은 국토 중에서 바다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소득은 도시와 농촌보다 적을 뿐 아니라, 노령화의 속도도 빠르다. 즉 젊은 이들이 어촌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어촌의 교육과 의료시설의 수준 등이 도시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점은 젊은이들이 어촌을 떠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수준이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될 경우에도 젊은이들이 어촌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교육수준과 의료수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촌의 소득수준 향상이 젊은이들이 어촌으로 돌아오게 할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어업소득은 수산자원에 크게 의존한다.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어업소득은 어촌에 따라 차이가 크다. 어업소득이 높은 어촌은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어촌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촌은 청장년의 인구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어촌에는 수산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으로 생산 가능한 유형상품 혹은 무형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촌에 있어서는 수산물이 주요 소득원이다. 이와 같이 어촌의 소득원은 어촌의 자원의 다양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산물에 집중되어 있다. 어촌의 소득원을 다양화하여 소득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소득의 위험도 줄일 수 있게 될 때 어촌은 국토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한 어촌의 소득원을 다양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이다. 자원을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자원이 있더라도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없다. 어촌의 자원을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으로 전환시킬 인적자원은 어촌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하거나 어촌 내부에서 육성하여야 한다.

(2) 어촌관광의 역할

어촌의 문화자원은 물론이고 자연자원의 대부분도 어촌주민과 연계되어 있다. 마을어장¹⁵⁾에서의 어업행위는 어촌계원에게 주어져 있다. 즉 마을어장에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는 어업권의 형태로 어촌계의 질적 재산권을 형성하고 있다. 어촌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이 마을어장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어촌과 바다의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는 주체는 어촌계원이다. 주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어촌주민은 자원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즉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한 상품생산의 수요가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 부가가치와 그 가능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어촌주민이 이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육 또는 컨설팅을 받을

15) 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1에 마을어장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5미터 이내 (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7미터 이내)로 정의되어 있다.

필요가 있다. 어촌주민의 대부분은 정부의 용자 혹은 보조금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에는 소극적이다. 그들의 교육 참가가 어업활동 기회를 빼앗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 인적자원의 계발을 위한 교육에 어촌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기는 어촌의 자원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품이 어촌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어촌주민이 인식하는 것이다. 여름과 주말에 어촌을 방문하는 외지인이 어촌에서 무엇을 원하는 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하여 어촌주민이 고민할 때 어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촌주민이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 중의 하나가 어촌관광이다.

외지인이 어촌에서 원하는 것은 먹을 것, 보는 것, 즐기는 것 등의 어촌관광이기 때문이다. 즉 외지인이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고 어촌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는 관광객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들은 관광객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형상품과 무형상품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어촌관광은 어촌의 인적자원의 계발에 기여할 수 있다.

4) 생활환경 및 복지의 향상

(1) 필요성

인간의 삶의 질은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소득수준은 물론이고 비경제적 요소인 생활환경과 복지수준 등도 인간의 삶의 질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어촌은 도시보다 소득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과 복지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 즉 어촌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의료환경, 문화환경 등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따라서 어촌주민의 삶의 질은 도시

주민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어촌과 도시의 소득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아 어촌의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남에 따라 어촌의 생활환경의 개선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어촌의 주거환경 중 주택뿐만 아니라 상수도과 하수도의 보급률은 도시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의 경우에는 아직 자연에 의존하는 가구의 비중이 어촌이 가장 높다. 그리고 어촌은 1차적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대부분 보건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가 많은 어촌의 낮은 의료수준, 낮은 소득수준, 열악한 생활환경 등은 노인의 복지수준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어촌의 노령화는 경제적 측면의 복지는 물론이고 대화 상대자를 줄여 노인층의 외로움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어촌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낮은 복지수준은 어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즉 어촌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생활환경과 복지의 수준을 동시에 높여야 어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젊은이의 어촌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어촌관광의 역할

어촌의 방문객은 여러 가지 방문 목적을 가진다. 그들은 어촌주민이 생산한 수산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거나 어촌에서 민박을 하거나 어촌의 어메니티를 즐기기도 한다. 이러한 어촌 방문객, 즉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어촌관광이다.

어촌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촌주민은 어촌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그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촌민박은 물론이고 음식판매의 수요증가는 어촌의 열악한 생활환경의 개선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관광객이 숙박하거나 음식을 먹는 공간이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어촌

의 경우에는 어촌관광을 통하여 소득의 증가와 함께 생활환경의 개선도 이룰 수 있다.

또한 어촌관광은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어촌에 대한 어촌주민의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어촌주민은 도시보다 낙후된 공간으로서 어촌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도시주민과 어촌주민의 교류를 통하여 어촌의 장점을 알게 됨으로써 어촌주민이 어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어촌의 노령층은 어촌의 전통 문화, 어구·어법 등의 보유자이다. 이러한 어촌의 다양한 생활과 생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훌륭한 무형자산이다. 무형자산은 어촌관광 상품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객과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그리고 노인층의 생활 및 생산과 관련한 무형자산이 관광상품이 될 경우에 그들은 전통문화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층이 전통 문화 가이드로 역할을 함으로써 어촌관광은 어촌 노인의 복지 향상 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촌관광은 어촌의 소득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어촌의 생활환경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활성화

1) 어촌관광과 수산정책 변화

수산자원의 조성관리, 기르는 어업의 육성, 허가어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포함한 수산정책이 수립·집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어촌의 비전이 밝지 않다. 이러한 위기의 어촌을 희망의 어촌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수산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필요한 시점이

다.

생산자 중심의 수산정책이 아니라 수산물의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있는 방향으로의 수산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수산정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어촌관광이다. 왜냐하면 어촌관광은 소비자인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촌과 바다의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촌관광의 공급자는 소비자인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어촌의 다른 자원을 활용한 상품을 생산한다.

어촌관광은 생산품목별 정책, 업종별 정책 혹은 부분별 정책을 통합할 수 있다. 즉 공간적인 어촌의 개념에서 벗어나 어촌을 경영체로서 인식할 때 소비자 지향적인 통합적 수산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어장은 어촌의 주체인 어촌주민의 생산공간이다. 어장 중심의 수산정책은 어촌의 생산공간을 어장으로 제한함으로써 활동의 영역을 축소할 수 있다. 어촌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어장과 어촌에 존재한다. 어장에 있는 자원과 어촌의 생활공간 자원은 그 자체로서 상품의 재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자원을 연계하여 상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즉 자원의 수직적 통합¹⁶⁾뿐만 아니라, 자원의 수평적 통합¹⁷⁾을 통하여 상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과 바다 자원의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은 어촌경영의 다각화¹⁸⁾를 이룰 수 있다. 어촌경영 다각화는 어촌의 상품생산의 다양성으로 상품의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수익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생산량과 가격의 변동성이 큰 수산물의 특성으로 어업은 수익의 변동성, 즉 어업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16) 생산사슬(가치사슬)의 투입·산출 관계에 있는 자원들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17) 생산사슬(가치사슬)의 동일한 수준에 있는 자원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18) 기업의 경영다각화는 환경변화나 경쟁격화에 대응하여 기업활동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기업의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기업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15) 본래 자산의 조합을 의미하며, 상품의 조합도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그러나 관광객의 어촌관광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상품의 생산은 상품의 결합으로 어촌소득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어촌경영의 다각화를 이룰 수 있는 수산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2)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방안

(1) 어촌변화의 촉매제로서 어촌관광

①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개방의 과정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어촌은 지리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도시보다 배타적인 국토 공간 중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어촌의 배타성은 어촌 활성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촌개방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그림5-1>은 어촌관광이 어촌을 개방시킬 수 있는 과정을 나타낸다.

		3단계
		어촌생산공간의 개방
1단계	어촌인적자원의 유입	어촌관광의 성숙기
도시와 어촌의 교류	어촌관광의 성장기	
어촌관광의 도입기		

[그림 5-1] 어촌개방과 어촌관광의 관계

어촌관광은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이자 생산공간인 어촌공간을 도시주민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할애하는 역할을 한다. 어촌개방의 1단계는 어촌관광을 통한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교류는 도시주민과 어촌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즉 도시주민은 어촌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어촌주민은 소득원을 다양화시킴과 동시에 어촌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어촌관광이 활성화되는 성장기에는 어촌 이외의 거주자가 어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즉 어업소득의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어업 이외의 소득원으로부터 소득을 창출하려는 도시주민이 어촌으로 이주할 것이다. 또한 어촌주민은 어촌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하여 외부 인적자원의 유입을 시도할 것이다.

어촌관광의 성숙기에는 어촌은 복합산업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 즉 1차 산업인 어업을 기반으로 자원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2차 산업, 3차 산업이 연계되는 어촌의 복합산업 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어촌주민은 어촌의 생산공간인 어장의 개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시도할 것이다.

② 어촌관광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공식적 조직은 물론 비공식적 조직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이다.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조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촌을 구성하는 주민의 사고의 변화다. 그러나 배타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어촌주민의 사고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은 어촌주민의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생계형 어업을 영위하는 어촌주민의 대부분은 교육받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관광에 관심이 있는 어촌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어촌주민보다 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큰 편이다. 왜냐하면 어촌관광은 어업의 지식과 경험 이외의 다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촌주민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림5-2>는 어촌관광이 인적자원의 계발에 기여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어촌관광상품은 관광객에게 낯익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촌관광상품에 대한 설명과 어업체험의 시범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촌주민은 어촌체험관광의 가이드로 참여함으로써 어촌 관광이 어촌주민의 새로운 역할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

		3단계
		어촌의 통합적 경영
	2단계	
	어촌관광 상품개발	
1단계		
어촌관광 가이드		

〔그림 5-2〕 인적자원 계발과 어촌관광의 관계

그리고 어촌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 어촌주민은 가이드 역할은 물론이고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의 다양한 개발에 필요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즉 어촌관광소득을 높이기를 원하는 어촌주민은 어촌관광 상품개발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어촌주민은 어촌관광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어촌관광은 물론 어촌 복합사업의 주역인 어촌의 통합적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③ 어촌관광을 통한 지역브랜드 창출

어촌관광은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어촌관광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어촌이다. 따라서 어촌 관광객은 어촌공간에서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소비한다. 어촌의 유형 또는 무형의 관광상품은 어촌의 다양한 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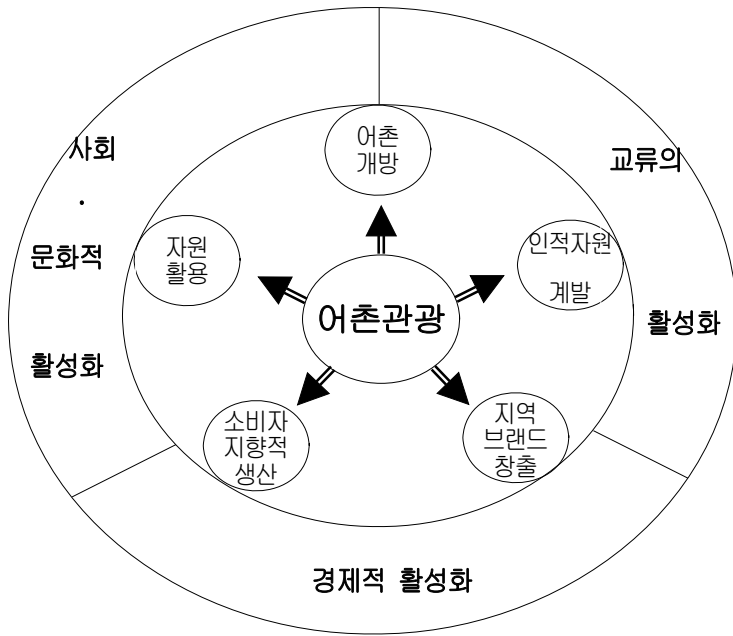
어촌의 관광객이 어촌 자원의 가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어촌주민은 자

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인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어촌주민은 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 지향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어촌 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어촌주민이 지역적 고유성을 바탕으로 독창적으로 개발한 어촌관광상품은 독점적 관광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점적 관광시장을 점유하는 어촌관광상품은 관광시장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어촌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명, 특산물, 경관, 무형자산 등이 지역 브랜드의 기초이다. 즉 어촌주민이 개발한 독특한 어촌관광상품은 그 자체가 브랜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이 존재하는 공간인 어촌지역의 브랜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촌관광을 통한 지역브랜드의 창출은 어촌소득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어촌주민의 자긍심 제고를 통한 어촌 활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2) 어촌관광과 어촌활성화의 관계

<그림 5-3>은 어촌관광이 어촌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과 어촌활성화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5-3] 어촌관광과 어촌활성화의 관계

어촌개방은 어촌주민과 도시주민의 교류 활성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어촌의 인적자원 개발을 유도한다. 그리고 어촌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은 문화자원의 보존, 발굴, 이용을 통한 사회·문화적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어촌자원을 활용한 소비자 지향적 관광상품의 생산은 경영의 다각화를 통한 위험의 감소와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어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어촌 지역의 브랜드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브랜드 창출은 어촌의 경제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어촌 활성화는 수산정책의 당면과제이다. 정부는 침체된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책수립과 투자를 집행하고 있지만, 어촌 활성화의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어촌을 활성화시키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어촌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은 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촌의 부가가치는 어촌과 바다의 자원을 다양하게 이용할수록 커진다. 따라서 어촌관광이 어촌 활성화의 수단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어촌관광은 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유형 또는 무형의 관광상품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촌관광은 어촌에 새로운 시장, 즉 어촌 관광시장을 형성한다. 시장의 두 축인 소비자는 관광객이며, 생산자는 어촌주민이다. 어촌 관광시장은 어촌에서 형성되는 장소적 제한이 있다. 어촌 관광시장은 공산품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떨어져 있다. 어촌 관광시장의 소비자로부터 원격성은 단점일 수 있지만, 도시와 다른 어촌환경은 도시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를 어촌관광을 통하여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

어촌 관광상품의 시장은 어촌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어촌관광은 외지인의 방문을 촉진시키고, 어촌 자원의 이용자를 어촌주민으로부터 도시주민으로 확대시켜 어촌개방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어촌개방은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어촌개방은 외부로부터 인적자원의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즉 어촌관광시장의 소비자 방문은 물론이고 어촌관광시장의 생산자로서 외지인의 어촌유입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유입은 어촌의 노령화로 인한 인적자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촌 인적자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어촌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어촌 관광시장에서 주민들은 소비자가 선택하기를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소비자 지향적 사고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어촌 관광시장은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경우도 계절적인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성은 어촌 관광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이 고유성과 독창성을 가질 때 관광시장이 독점시장으로 존속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어촌 관광의 독점시장은 해당 어촌의 독창적 브랜드를 창출하

여 어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제6장 결 론

1. 요약 및 결론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광욕구가 증가하고, 동시에 관광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즉 경유형 대중관광 수요가 감소하고 체류형 연성관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체류형 연성관광 중 어촌관광의 비중이 점점 증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촌관광을 포함한 수산정책의 변화는 시의적절한 정책의 변화로 판단된다.

어촌관광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정부 투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어촌관광사업 중에서 어촌의 변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사업에 참여한 어촌주민들은 어촌관광이 어촌의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개선과 자긍심 제고 등의 사회·문화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관광은 어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인 어촌의 배타성, 단편적인 어촌과 바다 자원의 활용, 어촌의 노령화, 어촌 주민의 부족한 시장경제 마인드 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촌체험관광은 관광공간이 어촌의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연스럽게 어촌주민과 도시주민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어촌체험관광은 어촌의 개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어업생산 경험인 많은 노령층이 어업체험의 가이드로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어촌주민은 어촌과 바다의 자원을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주민의 이러한 의식전환은 향후 어촌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촌관광은 어촌주민의 수동적 생산자 중심의 사고로부터 능

동적 소비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시켜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정책수단임에 틀림없다. 즉 어촌관광은 어촌의 개방, 다양한 어촌자원의 활용, 인적자원의 계발, 소비자 지향적 생산시스템 구축, 지역 브랜드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어촌 활성화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어촌관광의 역할은 어촌의 경제 활성화, 사회·문화적 활성화,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제언

국토의 한 부분인 어촌은 바다의 자원 중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간이자 생산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소득은 수산물의 생산량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장환경의 변화, 수산자원의 감소, 유가상승, 저렴한 외국 수산물의 수입 등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어촌지역의 소득수준은 도시지역은 물론이고 농촌지역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어촌환경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청장년의 인구비중이 점점 감소하여 어촌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촌의 노령화로 인한 어촌의 공동화는 어촌과 바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회의 상실을 결과할 수도 있다. 어촌의 공동화 과정은 어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바, 어촌을 살아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국토의 개체로서 어촌이 제 역할을 할 때 어촌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필요를 채우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젊은 어촌 만들기’ 정책대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수산정책에 어촌의 개방을 통한 인적자원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어촌의 수산물 생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산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의 부가가치 창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주민이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수산자원에 집중한 자원 활용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산물 생산 중심의 정책은 어촌을 1차 산업인 어업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 어촌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직과 지역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차 산업인 어업에 종사하는 어촌주민의 사고의 변화가 매우 시급하다. 어촌의 인적자원을 계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수립이 필요하다. 단순한 어업행위에서 벗어나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경영마인드 형성의 필요성을 어촌주민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수산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수한 어메니티를 가진 어촌은 장소 마케팅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촌의 독창적 유형상품과 무형상품은 독과점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촌주민이 생산하는 수산물이 거래되는 시장경제가 생산시장 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으로 구성되는 것을 인식할 때 상품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어촌주민이 소비시장에서 소비자와 교류할 수 있는 수산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수산물뿐만 아니라 어촌과 바다의 자원을 이용한 유형상품과 무형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 유형상품과 무형상품은 어촌지역의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의 소비자의 대부분은 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다. 따라서 관광객의 소비욕구를 만족시키는 상품은 관광객의 재방문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구전을 통한 홍보로 상품의 가치를 높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어촌주민이 어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 유형상품과 무형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산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산정책의 변화를 이끌고 소비자인 도시주민과 생산자인 어촌 주민을 연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의 하나가 어촌관광이다. 따라서 생산자 중심의 수산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수산정책의 변화의 수단으로서 어촌관광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수산정책의 변화를 통하여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어촌 관광이 어촌을 활성화시키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어촌 활성화의 수단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수산정책에 어촌관광의 역할을 반영한 새로운 관점의 수산정책 수립으로 어촌 활성화의 돌파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김성귀·홍장원·박상우,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농림부,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1996.

박성쾌 외 8인, 「어장·어항·어촌을 통합한 어촌종합개발 모형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박시현 외 8인,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통계.

유승우·박경철,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연구원, 2004.

이동필 외3인,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평가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이승우·홍장원·한광석,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이학식·임지훈, 「SPSS 12.0 매뉴얼」, 법문사, 2005.

일본 농림수산성, 「그린투어리즘의 전개방향」, 2005.

일본 수산청, 「블루투어리즘(바다관광) 추진을 위한 안내서」, 1999.

일본 수산청, 「도시 어촌 교류를 위한 지침」, 2005.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2007.

_____, 「어업총조사」, 20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2001.

한표환, 「지역활성화평가지표의 개발과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해양수산부, 「도시·어촌 교류를 통한 어촌지역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2005.

_____, 「수산시책의 장기적 변화와 금후의 정책방향」, 2006. 10.

_____,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 2007.

_____,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관광 진흥 종합대책」, 2004.

홍장원, “어촌체험관광마을의 발전방향”, 「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12.

황기형·김성귀·이종훈, 「국내 행양관광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
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황기형·이승우,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해
양수산개발원, 2000.

<http://hajeon.invil.org> : 하전마을 홈페이지

<http://seongam.seantour.org> : 선감마을 홈페이지

<http://www.buraemi.com/index.asp> : 부래미마을 홈페이지

<http://www.gyoson-go.com> : 일본 도시어촌교류 홈페이지

부록 :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활성화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원은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으로 어촌관광사업을 통한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 조사는 어촌관광 및 어촌활성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 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어촌지역 발전에 동참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 8. 0 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2-2105-4970)

※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기타 난에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11-1 ‘있다’ 면 구체적인 활동을 적으시오. ()

안내 귀하의 마을에서 어촌관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 ‘12’번 질문에 응답하시고, 실시하지 않는다면 ‘13’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12. 귀하의 마을에서 실시하는 어촌관광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 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어촌관광 방문객들이 프로그램 참가, 숙박식사를 위해 마을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어촌관광으로 수산물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어촌관광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숙박 식사매점 등)가 늘었다.	①	②	③	④	⑤
어촌관광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 전기 등의 생활 기반시설이 생기거나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어촌관광으로 청장년층이 늘었다.	①	②	③	④	⑤
어촌관광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어촌관광으로 마을의 경관이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어촌관광으로 조성된 시설(체육시설, 공원 등)을 마을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어촌관광으로 공연, 축제 등 문화적 활동이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어촌관광으로 마을 고유의 문화를 발굴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어촌관광으로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어촌관광이 관광객들의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그들과 교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어촌관광으로 마을을 아는 외국인인 늘었다.	①	②	③	④	⑤
어촌관광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어촌관광의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① 어촌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아 찾는 방문객이 많지 않다.
- ② 프로그램이 적어 마을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짧다.
- ③ 관광객들이 숙박, 식사 등을 외부에서 해결하고, 마을에서 쓰는 돈은 거의 없다.
- ④ 1년 중 어촌관광을 실시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 ⑤ 어촌관광 방문객들이 지역의 특산물(수산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 ⑥ 어촌관광 방문객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1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
- ⑦ 기타()

14. 어촌관광으로 청장년층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 ② 2세를 위한 교육시설 및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 ③ 어촌관광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촌관광이 더욱 활성화되어 한다.
- ④ 어업권 등이 개방되어 어업과 어촌관광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⑤ 접근성이 개선되어 도시의 편의 및 문화시설을 보다 편리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⑥ 기타()

15. 어촌관광이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① 발굴·보존된 마을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가 없다.
- ② 마을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관광자원화하지 못하고 있다.
- ③ 문화관광상품이 도시 관광객의 욕구/취향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④ 지속적으로 문화·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공원, 회관, 광장 등의 공간이 마련되지 못했다.
- ⑤ 기타()

16. 어촌관광사업이 도시·어촌 간 교류의 활성화에 보다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① 어촌관광 홍보
- ② 어업 및 어촌생활 체험프로그램 개발
- ③ 어촌주민과 도시주민의 상호이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 ④ 어촌과 도시의 자매결연, 정보 네트워크 등 교류의 장 개설
- ⑤ 도시주민에 대한 열린 마음
- ⑥ 기타()

17. 귀하는 어촌관광을 통해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두 가지를 선택하시오.(,)

- ① 마을사람들을 선도하여 어촌관광을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하다.
- ②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 ③ 어촌 및 어촌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 ④ 어촌관광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⑥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8年 12月 29日 印刷

2008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姜 淙 熙
發行處	韓國海洋水產開發院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組版・印刷/ 세븐스가든 2263-0066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734-6818